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vol.35

ZOOM IN

우리들의 '예술'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GENDER TALK

내가 살아가는 공간, 그 곳의 전과 후
우리들의 연말파티를 기억하며
다신 돌아오지 않을 그 여름을 생각하면서
그것 말고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피부에 새기는 예술

CONTENTS

Zoom-in

우리들의 '예술'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02



발행인
대전광역시장

발행일
2022년 6월 30일

편집위원
류유선, 권순지, 김순조, 서한나, 이유진

편집
김성곤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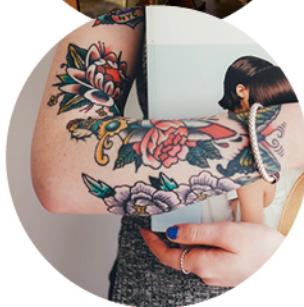
디자인·제작
디자인스튜디오203대전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연 2회 함께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Issue&View

예술의 이상과 현실, 그 사이의 나	10
바닥에서 만들어가는 청년문화예술의 꽃	12
21세기 '신르네상스'의 주역을 꿈꾸는	14



Gender Talk

내가 살아가는 공간, 그 곳의 전과 후	18
우리들의 연말파티를 기억하며	19
다신 돌아오지 않을 그 여름을 생각하면서	20
그것 알고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21
피부에 새기는 예술	22

함께하는 생각

맞배집: 서로 맞절하는 공간	23
-----------------	----



문화와 젠더

꿈과 도전은 어떻게 좌절하고 실현되나	25
하얀 대리석 무리들	28
책 리뷰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	32



이슈 더하기

죽음으로 그들이 전하는 것은?	33
내가 선택하는 가족: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이야기	35
예민함으로 바라볼 어린이의 권리	37

Deajeon IS U

다함께 누리는 평등하고 안전한 도시 대전	39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대전' 「대전청년내일센터」가 만듭니다	40

ARTIST in DAEJEON



우리들의 ‘예술’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지역’, ‘예술가’, ‘여성’, ‘청년’. 네 개의 단어를 관통하는 단어로 ‘비주류’만큼 어울리는 단어도 없을 것이다.

또한 ‘역동’, ‘자유’, ‘되바라짐’, ‘자신감’과 같은 단어와도 사뭇 잘 어울린다.

어떻게 상반되는 이미지의 단어들이 어울릴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원래의 이미지 위에 ‘비주류’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우리 사회의 편견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타인의 눈에 비춰진 ‘비주류’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주류’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예술하는 여성 청년들의 당당함으로 편견을 깨버리려 한다.



Writer

Magician

Singer

Actor

서한나

'보슈'라는 단체에서 여성청년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기획하면서 글쓰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작년 여름에『사랑의 은어』라는 산문집을 하나 냈어요.

이단비

'아트먼트'를 운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마술사로 활동을 오래했어요. 최근에는 대전을 기억할 수 있는 컨텐츠로 '제로사이(042)'라는 이름으로 로컬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임유진

저는 '유진솔'이라는 이름으로 노래 부르면서 살고 있어요. 최근에는 「만달라」라는 이름의 앨범을 냈어요. 대전역 옆의 정동과 원동이라는 오래된 동네를 기록한 노래 5개가 담겨있는 앨범인데요 성매매 집결지의 문제의식, 시장이나 골목길의 풍경, 주민들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보려고 했어요.

한은성

저는 연극을 하고 있어요. 대전에서 거의 유일한 연극치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작년에 대전에서 처음으로 연극과 치료를 접목시킨 공연을 올렸었고요. 공연을 올렸었고요.

#1 예술인으로서의 삶

최근의 문화예술 활동

김성곤 · 여러분의 최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듣고 싶어요.

서한나 · '보슈'라는 단체에서 여성청년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글쓰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작년 여름에『사랑의 은어』라는 산문집을 하나 냈어요. 글 쓰는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작품의 가치나 인지도를 증폭시켜줄 수 있는 기반이 수도권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거든요.

임유진 · 저는 '유진솔'이라는 이름으로 노래 부르면서 살고 있어요. 최근에는 「만달라」라는 이름

의 앨범을 냈어요. 「만달라」는 대전역 옆의 정동과 원동이라는 오래된 동네를 기록한 노래 5개가 담겨있는 앨범인데요 성매매 집결지의 문제의식, 시장이나 골목길의 풍경, 주민들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보려고 했어요.

이단비 · 주식회사 '아트먼트'를 운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마술사로 활동을 오래했어요. 최근에는 대전을 기억할 수 있는 컨텐츠로 '제로사이(042)'라는 이름으로 로컬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대동을 기록하기 위한 아카이브 전시도 하고, 지역 여행을 하는 코스에 마술공연을 넣는다면 지하면서 대전을 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마술 외적인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즉흥공연이나 작은 박스를 이용하는 인형극 같이 새롭게 저를 표현하는 작업

도 시도해보고 있어요.

한은성 ·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을 하고 있어요. 대전에서 거의 유일한 연극치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작년에 대전에서 처음으로 연극과 치료를 접목시킨 공연을 올렸었고요. 저도 하나님 말씀처럼 대전에 네트워크가 없다고 느껴져서 1인 예술가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과 창작활동을 시도해보는 단계에 있어요.

문화예술활동으로 인해 내 삶에서 변화된 점

한은성 ·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항상 문화예술을 한 셈이라서 변화된 건 없지만 지속되는 건 있어요. 돈 벌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바쁘게 활동하는 만큼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기적인 수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단비 ·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취미가 직업이 된 케이스다 보니, 초등학교 6학년때 취미로 마술을 잠깐 건드렸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왜 마술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저를 돋보이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원래는 피아노를 좋아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마술을 알게 되었어요. 하다 보니 마술도 비용이 많이 들기는 했지만 무대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중독 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임유진 · 저는 노래를 원래 좋아했지만, 예전에는 혼자 노래방에서 불렀다면 지금은 제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서한나 · 저도 어려서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지만, 절대 직업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당시에는 여성 작가에 대한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빙곤하고, 사회적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취미정도로만 즐겨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좋아하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활동가로의 정체성이 강했는데, 지금은 제 생활의 반은 글 쓰는게 차지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이대로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김성곤 ·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삶의 만족도는 다들 높아지셨네요.

한은성 · 하나 덧붙이자면 프로가 되면서 제 목소리와 동작을 통해 형상화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공연을 직접 만들면서 제 가치관이나 고민을 형상화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제 만족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로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가 있었어요. 어느 한 분이 '벼랑 끝에 있던 제가 공연을 보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라고 보내주신 후기를 보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임유진 · 오랫동안 '직업으로서의 활동가'의 삶을 살다가, 2020년 즈음부터 '직업으로서의 음악가'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일하던 여성단체를 그만두었어요. 자유와 불안이 동시에 찾아오더라고요. 음악가로 사는 게 정말 괜찮을까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손을 잡아준 곳이 맞배집이라는 공간이었어요. 존경하는 뮤지션 '시와'님과 함께 '예술 빛는 여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맞배집 정기 공연 '연월' 무대에 설 수 있었어요. 그때가 떠올라요.

서한나 · 처음 글을 쓸 때는 단순히 칭찬 받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제 글을 읽고 자기 삶에서 변화가 있었다. 직장에서 버틸 힘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해주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더 내가 세상에 접촉면을 넓히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혼자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까지 생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자와 교감하는 요즘이 가장 즐거워요.

이단비 · 지금 운영하는 회사의 마술 공연은 대부분 어린이 중심이에요. 어린이들은 마술을 정말 마법처럼 믿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저도 같이 몰입이 되어서 가장 즐겁고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죠.



가장 즐거웠던, 빛났던 순간은?

한은성 · 작년 공연에서 전 석 매진이 된 적이 있어요. 대전에서 첫 번째로 선보인 관객 참여형 치료적 공연이었죠. 아무런 지원 없이 제 사비로 공연 제작했기에 출발부터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평평 울고 가시는 관객들이 있었을 정도

공연을 직접 만들면서 제 가치관이나 고민을 형상화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제 만족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2 대전에서의 삶

대전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

임유진 · 제가 다니던 대학가 공간에 '즐길거리'라고 거리 공연을 기획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역에서도 음악할 수 있구나하는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는 지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점점 소모임도 늘어나게 되고 공연도 참여하게 되었죠.

이단비 · 대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가장 오래 머문 지역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목포에 있는 대학의 마술학과에 진학하고, 그 이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공연했어요. 봇짐 싸들고 다니듯 지역을 많이 옮겨 다니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동시에 어린 시절 생활했던 대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부모님도 계시니 자연스럽게 대전이 안식처가 된 것 같아요.

한은성 · 저는 대전을 좋아해요. 3살 때부터 살았어요. 서울 대학로 근처에서 잠시 살았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월세부터 괴롭히더라고요. 반지하에 살았는데 월세가 40만원이었어요. 대전에 다시 올 때는 사실 자포자기로 왔어요.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성향과 대전의 성향이 비슷해요. 대전이 안정감을 줘서 계속 살고 싶어요.

서한나 · 저도 유진님이나 은성님 이유와 비슷해요. 처음에는 서울에 가려해도, 체력이 안될 거 같았어요. 또 월세를 감당할 수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슈'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도 생기다 보니 그 네트워크가 제게는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보슈'를 통해 만나는 분들이 "대전에서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사는 곳을 바꿔봐야겠다는 사명감이 들기도 해요.

서울과 지역의 차이

김성곤 · 만약 지금 대전이 아니라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무엇이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서한나 · 맞아요 저도 궁금해요. 세분은 공연예술을 하시니까, 서울과 대전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 전국 순회공연을 하면 대전 관객들이 호응을 제일 안해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한은성 · 정말 달라요. 호응이 달라요. 민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대전 시민들은 너무 공연이 재밌지만 크게 소리를 내면 다른 분들께 방해될까 봄 속으로만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웃음) 그리고 네트워크 차이가 있어요. 어디서 공연을 하고 무슨 아티스트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티켓도 잘 안팔리는 것 같고.

김성곤 · 정보가 부족한 것은 인정해요. 일부러 찾지 않는 이상 쉽게 정보를 알기는 어렵더라고요.

이단비 · 소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하려고 해도 관객을 모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지역에서는 무료 공연이 많아서 그런지 무료 공연이나고 문의를 많이 하세요. 지원을 받아 공연을 열 때는 그나마 낫지만 자체적으로 할 때는 항상 적자가 나오. 항상 마이너스를 생각해야하니 이게 정말 내게 도움이 되는 건가 싶을 때도 많아요. 스텝들에게도 잘챙겨주지 못해 미안하고요. 그리고 공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가 많이 적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임유진 · 저는 타지에서 공연을 해본 적은 없어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다만 대전에서 공연하면서 힘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좋아요. 만약에 서울에 살았다면 전 오히려 지역에 가고 싶었을 거 같아요. 제 성향상 아마 그랬을 거예요.

김성곤 · 저도 서울 가면 괜히 힘들더라고요. 대전이 타 지역에 비해 유료 관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가요?

이단비 · 어린이 공연은 무료가 많이 있긴 하죠. 주로 큰 기관에서 자선 공연식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비용을 지불하고 공연을 본다는 인식은 낮은 것 같아요. 유료일 경우에는 자신들의 예산에 맞춰 할인을 요구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만원이 정가인데 5천원, 3천원 이런식으로요. 그러면 대관료나 재료비를 맞



대전에서 공연하면서
힘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좋아요. 만약에 서울에
살았다면 전 오히려 지역에
가고 싶었을 거 같아요.

제 성향상 아마
그랬을 거예요.

추기도 힘들죠. 이미 공연을 올리기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해드리긴 하지만 많이 아쉬운 거예요. 적어도 투입한 비용은 보전되어야 다음에 한번이라도 더 할 텐데 쓴 비용을 복구할 수도 없는 거죠. 적자가 반복되면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공연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개인적 형식으로 받는 게 편할 때가 많더라고요.



#3 여성으로서의 삶

여성이라서 좋았던 점?

한은성 ·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제가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있는 세상에 살 수 있었던 것. 그게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오는 연대감이 좋았어요. 저는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왔어요. 연기과라고 해도 다들 여자들이니까 무대 셋팅을 우리가 다 했어요. 망치질부터 시작해서 조명까지 다 한거죠. 그 때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사회 나오니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작 과정에서 힘의 차이로 여자를 배려해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보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죠.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이단비 · 좋은 거인지 모르겠지만, 마술사라는 직업 자체에 여성이 드물어요. 마술학과에 입학했을 때도 80명 중에 2명만 여자였어요.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자 마술사가 있어?라며 관심을 보여주는 부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게 된 원동력도 되었고요. '이 건 힘이 많이 필요해서 너는 못 할거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오기가 생겨서 더 하게 되었던 것도 있어요. 공연을 갔을 때도 여성 마술사가 드물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성이라서 여성성을 강조하는 공연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요즘은 여성으로서 마술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자 마술사라는 인식이 남자 마술사의 보조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더 신기해하는 거 같아요. 그런 틀을 깨기 위해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자 마술사라는 인식이

남자 마술사의 보조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더 신기해하는 거 같아요. 그런 틀을 깨기 위해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기도 해요.





나를 지지해준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무엇을 하든, 누군가가
응원해준다는 것은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수 있겠죠.

서한나 · 여성들은 자라면서 자기 안의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기보다 참도록 길러지다보니, 내면으로 파고 들게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느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는식으로 자기검열도 하고요. 자기 확신이나 자기애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우울증을 겪는 친구들도 많아요. 저도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네가 느끼는 게 맞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글을 매개로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는 단계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건 제가 여자라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임유진 · 저도 비슷해요. 여성들과 연대를 하면서 하는 활동에서 뿌듯함을 느껴요.

내가 받은 특별한 지지와 연대

김성곤 · 앞서 말한 연대의 안과 밖에서 힘을 얻은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주변에서의 반응

은 어땠나요?

이단비 · 대전에 오래 살긴 했어도, 사실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는 별로 없지만, 청춘다락에서 만났던 친구들에게 감사한 기억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사회에 나와서 어쩌다 저를 다시 만나 도와주면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덕분에 마술 외적인 활동과 혼자 할 수 없는 작업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업적 수입을 얻는 거 외에 제가 하고 싶은 공연이나 전시를 할 수 있게 지지해줬어요. ‘너니까 해도 돼’ 이런 말들이 제가 뭐가 된 것처럼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임유진 · 저는 여성 창작자 네트워크 ‘페이즈’ 멤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 모임을 기반으로 첫 데모 음원 CD를 만들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 힘을 얻는 편이라서 ‘페이즈’와의 연대가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서한나 · 저는 ‘보슈’ 친구들이 있어서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아니였으면 10년 정도 뒤로 미뤘을 거 같아요. 친구들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건 글 쓰는 거니까 ‘보슈’ 활동하면서 글 쓰는 걸 계속 해보라고 응원해줬거든요. 그리고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데 조희수 가 가장 높았던 글은 “나에게 말을 가르쳐준 여자”라는 것이었어요. 그 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가 충성해야 할 독자는 여자들이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더 열심히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성곤 · 나를 지지해준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무엇을 하든, 누군가가 응원해준다는 것은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수 있겠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네요.

#4 미래의 삶

삶의 발전과 확장

서한나 · 글 쓰는 일을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서 외적으로는 다양한 장르를 글에 입혀보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시트콤이나 드라마를 쓰는 일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술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작업을 끊임없이 찾고 싶어요. 대본을 써서 영상화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더 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임유진 · 저는 올해 여성인권티움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를 기록하는 노래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계속 확장시키고 싶어요. 더 널리 알려져

야 할 이야기들을 음악을 매개로 전달하고 연대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한은성 · 저는 아주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저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를 연극으로 대변하고 싶어요. 지금 제작 중인 공연은 여성 장애인 자전 공연이에요. 실제로 무대에 여성 장애인 당사자가 서고 그의 삶을 조명한 내용이죠. 10월에 유성에서 올려지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그 다음에는 노인, 성 소수자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무대위로 올리고 계속 드러내고 싶어요. 그에 더해 대전 여성을 위한 무료 연극 치료도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입소문이 안나서 그런지 여태 두 분만 해드렸어요. 이것도 좀 더 자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단비 · 저 스스로 한계를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술로 유명해져야겠다는 목표만 있었고 이걸 안하면 다른 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많은 걸 생각하고 다르게 만들어줬어요. 보통 마술 공연은 관객과 만나서 노는 형식이었는데, 이게 차단되어 버리니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비대면 마술 공연을 많이 피하게 되니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죠. 그러다가 마술은 하나의 매개체로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르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제로사이'에서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알리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거죠. 마술을 벗어나 시야를 넓게 보게 되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접목시켜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어요.



외적으로는 다양한 장르를
글에 입혀보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시트콤이나 드라마를 쓰는
일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술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ARTIST in DAEJEON

나와 나의 '직업'

김성곤 · 앞으로도 쉼없이 많은 활동을 이어나가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활동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중요할 것 같아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평소 생각하고 있던 본인만의 정의가 있으신가요?

이단비 · '나를 표현하는 일이다.' 공연이든 다른 형식이든 그냥 나를 표현하는 것이 요즘에 드는 제 직업의 정의인 것 같아요.

임유진 · 모든 이의 이야기가 노래라고 믿는 싱어 송라이터입니다. 사실 노래하기 전에는 글을 주로 많이 썼었는데, 저는 저 자신이 글이나 노래를 통해 이야기를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서한나 · '사람을 더 잘 사랑하는 사람'. 글을 쓰면 어쩔 수 없이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같은 태도를 갖게 돼요.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글을 쓸 수 없기도 하고요.

한은성 · 저에게 연극인, 연극치료사 한은성이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자부심이자 가치'입니다. ☺

예술의 이상과 현실, 그 사이의 나

방희연_(사)아트리 대표



스물넷, 일 년의 휴학을 거쳐 예술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전시회를 마치고 다가온 현실에 난 도전할 용기도, 현실에 저항할 힘도 없다. 그저 난 무엇을 해야 할지, 할 수 있는지, 아니 할 수는 있는 것인지 도저히 방향이 잡히지 않는다. 예술 대학에 들어오고 졸업 후의 문제는 먼 미래라고 생각했었다. 열심히 작업해서 남들과는 다른 삶을, 만족스러운 인생을 나 자신에게 선물하겠다고 생각했던 나의 미래가 아니었다.

작업을 하고 싶었다. 미술을 하겠다고 결심했던 중학교 일학년, 그 순간부터 부모님은 나를 믿고 응원해주시며 여러 방면으로 막대한 지원을 해주셨다. 그래서 덕분에 남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그림을 배워 예술고에 진학했고, 그만큼 난 그림을 놓지 않고 그림으로 먹고사는 당당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나의 결정을 지지해주신 것에 대해 보답하고 싶었다.

그래. 내겐 그런 생각이 있었다. 타지에서 온 나는 그래도 대전에서 학교를 졸업했기에 앞으로도 이 지역에 정주하여 작업을 이어가는 것이 맞다 생각했다. 그러나 스물 중반의 나이에 대전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내게 많은 것을 요구했다. 매달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 재료비 그리고 작업실 임차비용, 전시 활동을 위한 대관 비용 등 물질적인 부분과 작가인 프라, 안정적인 예술 생태계 등 내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다. 또한 문화기획, 예술시장, 정책, 교육 등 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별도로 공부해야만 했으며,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며 꾸준히 내 작업에 관한 연구와 이를 보여줄 수 있는 현장 경험을 쌓아야 했다.

예술 활동을 이어갈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예술 활동을 위해 (비)예술 활동으로 수익을 벌어 작업을 위한 비용을 충당시키는 것과 정부와 문화예술기관에서 주최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작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전자는 (비)예술 활동에 대한 경험 부족, 불안정한 수입과 같은 두려움이 있었고 작업과 수익 활동의 주체 전도가 염려스러웠다. 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을 알지도 못하거나 궁극적으로 작품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을 알지 못했다. 작업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이루기 위해선 비단 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환경도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을 어느새 느끼고 있었다. 지역에서 청년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깊은 수면 위에 떠 있

는 고립된 배 한 척과 같다. 작업을 위주로 하던 대학을 벗어나면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도와달라 외쳐봐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지쳤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분명 나만이 아닐 것이다 확신한다. 재정, 공간, 네트워크 부족에 대한 고민은 나만의 것이 아닌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고민일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조금이나마 바꾸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당장 시작할 수 없는 현실 그 사이를 직접 연결해보고자 했다. '개인'이 혼자 애쓰기보다 '우리'의 힘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나와 같은 사람들을 모았다. 고민과 지역의 정책 보완점에 공감하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이를 기점으로 모여 활동하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사단법인을 만들었다.

스물다섯, 지금 나는 현재 마음 맞는 사람들과 법인을 하나 이끌어가고 있다. (사)아트라는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와 청년 예술인의 지역 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현장 경험(전시/





“
 ‘나’의 작은 고민이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믿는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상황을 원망하며
 꿈을 저버리는 청년들이
 없는 현실을 만들어보자.
 ”

공연/플리마켓)을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법(조례)과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사업(간담회 및 토론회/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거버넌스의 역할도 한다. 현재 회원 수는 백여 명으로, 문화예술에 관심을 두는 청년들과 다양한 분야의 청년 예술인(음악/미술/무용/문학/연극 등)이 함께 소통하고,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나누며 법인 안팎에서 예술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입지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러한 민간 문화 거버넌스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청년 예술인의 실질적인 경험을 듣기 마련이다. 예컨대 재정, 공간, 인프라 문제로 인한 창작 기회 축소 및 생계유지의 어려움,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 심화로 인한 불공정, 예술시장의 불안정한 지속가능성 및 시장 지배력 등 아주 개인적이고 소소한 것부터, 최우선으로 바로 해결되어야 하는 공동의 목소리까지 이들의 니즈는 굉장히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느슨한 연대와 정성적인 평가 지표를 통한 정확한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광역과 기초단위 수준에서 예술인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통계를 활용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보편적인 문화복지지를 통해 시민이 신진 청년 예술인 활동에 관심을 가져 작품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지역 청년 예술인의 인권과 창작, 유통에 대한 기본 권리 to 보장할 수 있고 안정적인 지역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전 의문화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작은 고민이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믿는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상황을 원망하며 꿈을 저버리는 청년들이 없는 현실을 만들어보자. 오늘의 나는 또 이렇게 하루를 이어가고자 한다. **w**

인스타그램_ @artleadyou





바닥에서 만들어가는 청년문화예술의 꽃

고민석 _ mlm프로젝트 대표

필자는 예술을 전공하지 않았다. 예술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현대 미술이란 따분하고 어려운 상류층들만 즐기는 유산이라고 생각했다. 평범하게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던 대학생에게 어떤 사람이 불어 험난한 예술 스타트업 창업을 생각했을까.

내겐 순수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가정형편이 썩 좋지 않았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이 끓어 넘치는 사람이었다. 하루는 그 친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화가라는 직업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시각디자인이나 산업디자인이 아닌 순수예술을 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정말 예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다. 질문을 들은 친구는 소주를 입에 털어 넣으며 나에게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다.

「순수예술을 전공해서 예술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있는 전시회나,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을 해야해. 그런데 그 공모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전 몇 회 이상, 단체전 몇 회 이상 등의 제약사항이 있어. 물론 예술을 전공하여 대학을 다닌다면 출업 전시나 과제전 같은 자잘한 전시를 시켜주긴 하지만 외부에서 그런 경력은 쳐주지 않거든. 전시를 준비하기 위한 대관비, 도록비, 홍보비 등등으로 나가는 돈은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순수예술을 지속하기엔 힘든 이유야.」

구조적인 사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 때 나는 예술에 대한 열정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돈 없이도 전시할 기회가 한번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전시 기회가 간절한 청년예술가들은 전국에 굉장히 많을 것이라 예상했고, 참가비나 대관비를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 당시 나에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150만원이 있었다. 어차피 뒤봐야 어영부영 사라질 돈이니 내 손으로 자선 전시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굳하게 됐다. 그렇게 2021년 3월 ‘休’ 전시를 시작으로 mlm프로젝트가 탄생했다.



첫 전시 공모를 시작한 후 저마다 너무 간절한 지원 동기, 포트폴리오들이 메일로 날아오기 시작했고 15명의 작가를 선발했다. 최종 경쟁률은 5:10이었다. 전시회는 갤러리 카페에서 3일 진행이 됐는데, 총 관람객 수자는 350명 정도로 집계되었다. 운 좋게 작품도 팔리게 되었고 무엇보다 관람객 반응이 너무 좋았다. 갤러리가 아닌 갤러리 카페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접근성도 더 낮았고, 작품과 함께 커피 한 잔 하면서 쉬다 가는 것에 작가들도 관람객들도 모두 만족했고, 무엇보다 작가들이 전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좋아했다. 그들을 위해 전시를 꾸준히 열고 싶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고, 작가들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만 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트 굿즈 제작으로 이어졌다.

이 시점부터 우리의 프로젝트는 영리를 추구하게 되었다. 작품을 활용해서 각 분위기에 맞게 향수, 도자기, 소주잔, 패브릭 포스터 등을 제작해서 관람객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수익은 원작 작가와 분배했다. 다행히 굿즈의 반응이 좋았고, 지금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4회의 정기전시와 7회의 기획전시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전시는 꾸준히 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대전에서 참 많은 청년예술가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이 있었다. '예술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열심히 작업하며 자신만의 예술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누가 도와주던 아니던 간에 예술을 하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놓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고, 작품 판매가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그저 버텨내야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모 미술대학 교수님께서는 '오래 버티는 자들이 예술 시장에 결국 안착한다. 그 버티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 줄 모르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은 그렇지 않은 예술가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현저히 낮다.'라며 현실을 알려주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순수예술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이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으로 전공을 변경하고 있어 신진 작가들의 등장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조력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경제적인 벽 때문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청년예술가들이 너무 안타깝고, 대한민국 순수예술 생태계가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하는 것 같아 아쉽고 분하다. 물론 정부나 각 지역 문화재단에서 청년예술가 지원 프로젝트를 매년 늘리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와 비슷한 성격의 민간예술단체가 많이 생겨나서 대중의 문화예술향유 기회가 늘어난다면 이러한 경제적인 장벽이 점점 낮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청년예술가들에게 전시회를 열 최소한의 기회는 제공될 것이다. 이것이 mlm프로젝트다. 우리는 청년예술인들이 예술 세상에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싶다. ♡

21세기 ‘신 르네상스’의 주역을 꿈꾸는



수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인포그래픽의 내용은 편집자의 주관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는 예체능계열 학생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 살짝 증가하긴 했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6천여 명이 줄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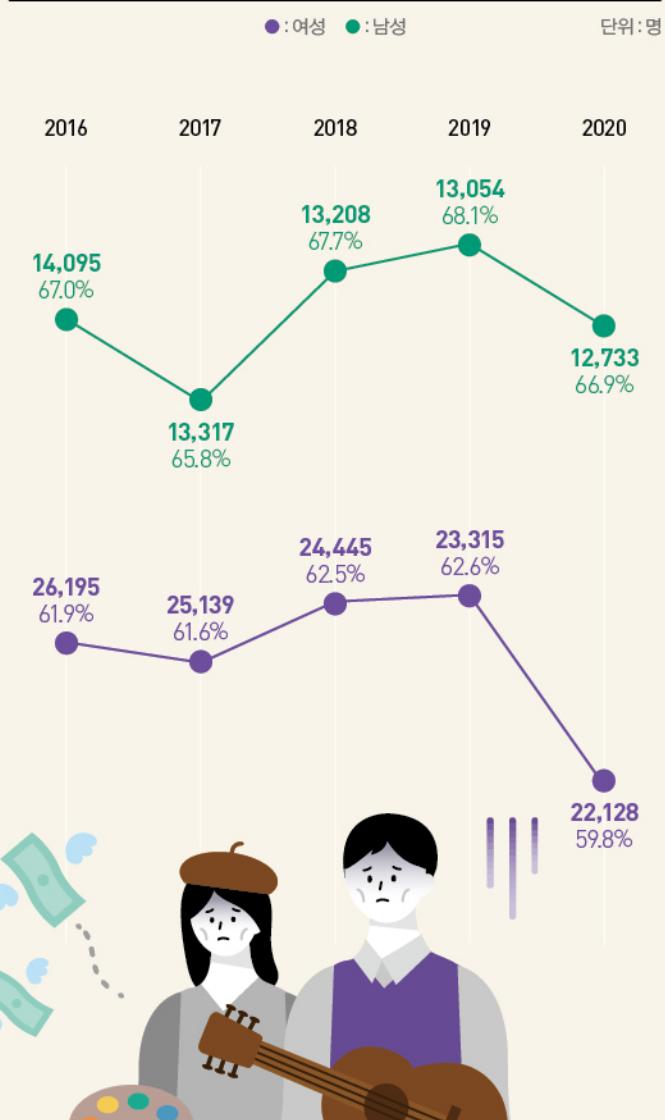
또 다른 통계를 보자. 2020년 기준, 65,000여 명의 예체능계열 졸업자 중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남녀평균 63%다. 2020년 예체능계열 여성의 취업률은 60%를 넘기지 못했다. 취업률의 감소와 예체능 계열 진학자 수와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현재 예체능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의 수도, 졸업자의 취업률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등교육기관 =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100
 ·출처: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및직업계고) 졸업자취업통계」,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 (201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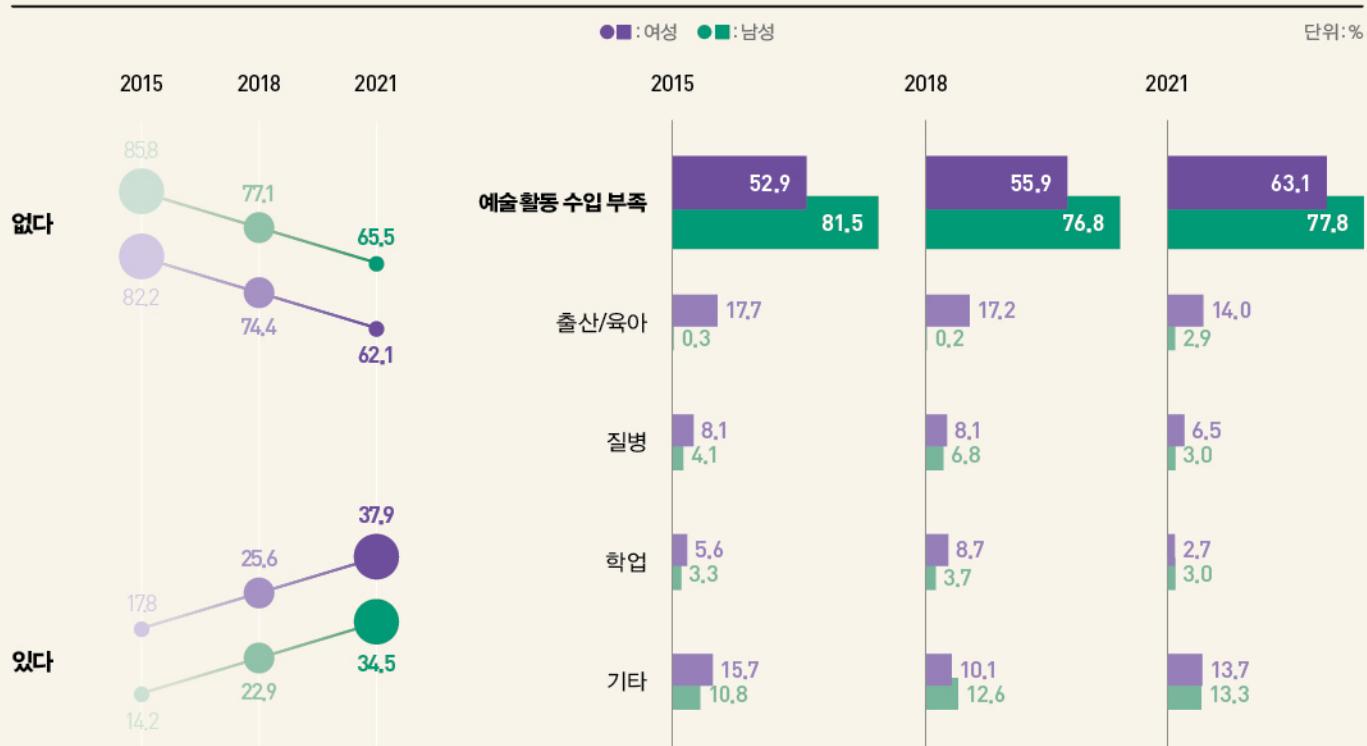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및직업계고) 졸업자_예체능계열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및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_예체능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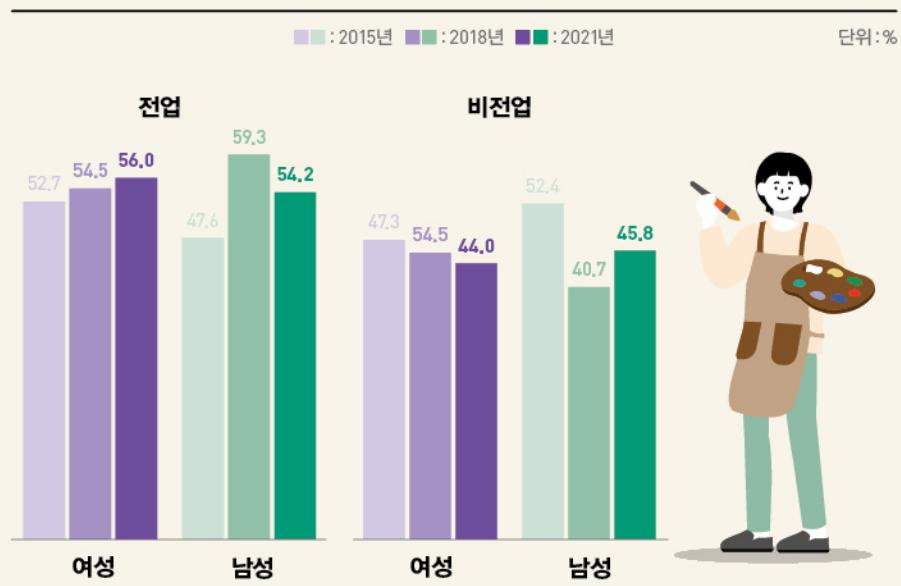


예술경력 단절 경험과 이유



· 출처: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8, 2021)

지난 1년간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 출처: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8, 2021)



범위를 좁혀 예술계의 현황을 보자. 많은 예술인들이 1년 이상의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경력단절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술 활동에 따른 수입의 부족이었다. '상상'과 '현실'이라는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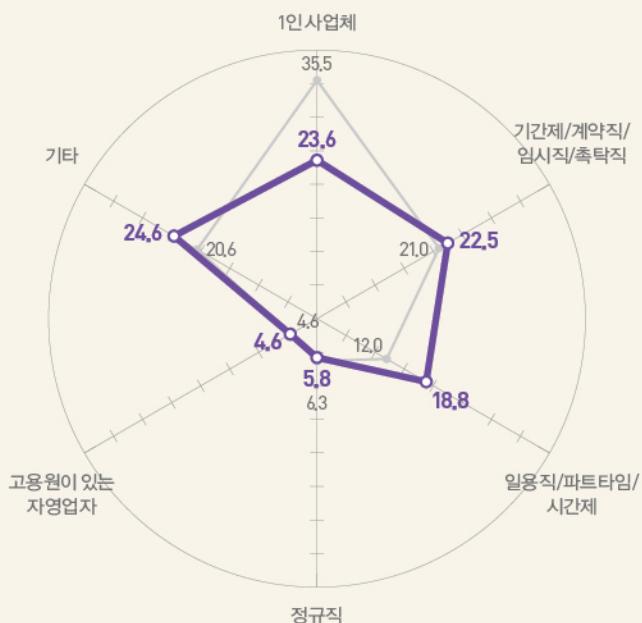
졸업자 수, 취업률, 경력단절 경험과 이유 등은 예술에만 전념하기 힘든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전업 예술인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변화가 있는 것일까?

전업 예술인 고용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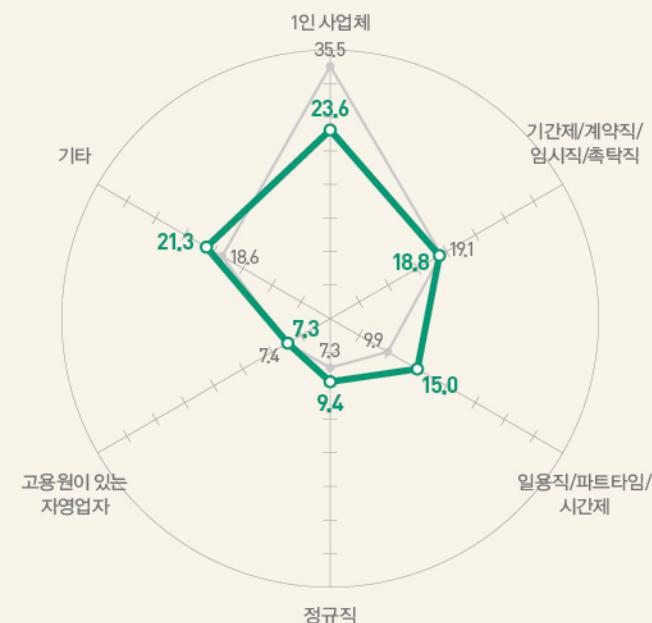
● : 2018년 ● ● : 2021년

단위 : %

여성



남성



출처: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8,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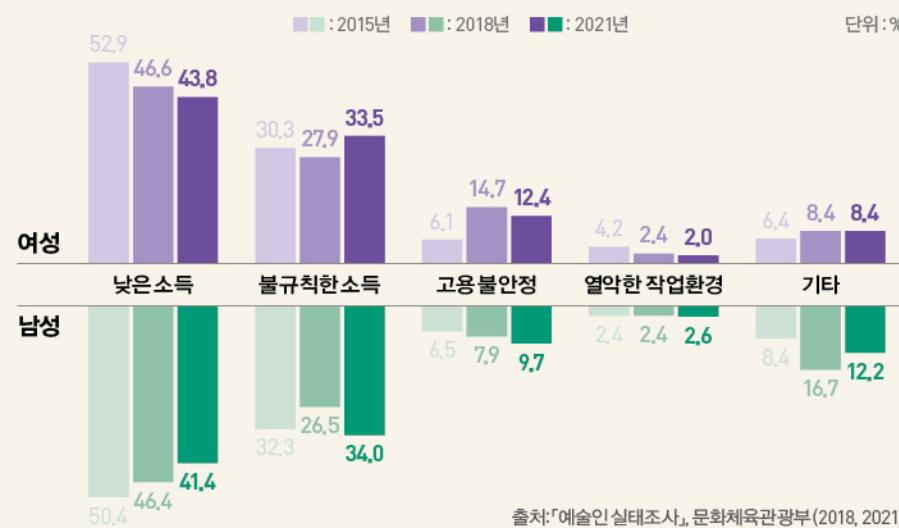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 (겸업 이유)

■ : 2015년 ■ ■ : 2018년 ■ ■ ■ : 2021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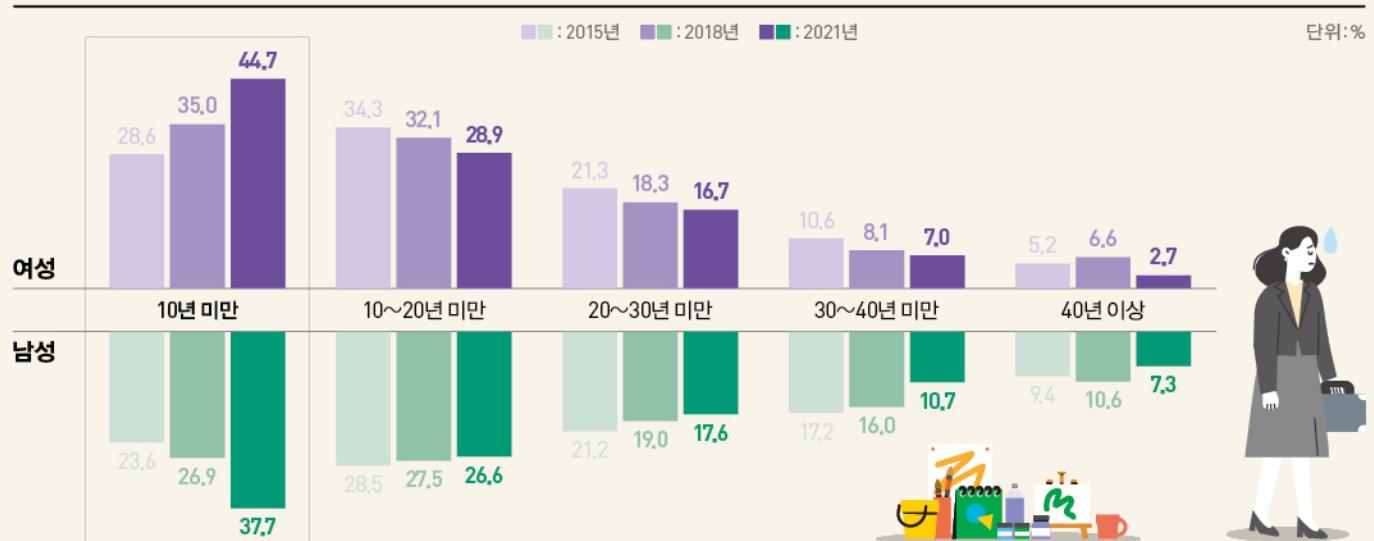
전업 예술인의 비율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질적인 부분은 만족스럽지 않다. 여성은 1인 사업체, 정규직의 비율이 줄고 기간제 및 일용직의 비율이 증가했다. 같은 시기 남성은 1인 사업체, 기간제의 비율이 감소하고 일용직, 정규직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활동에만 전념할 수 없는 이유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경력단절의 이유와 같다. 낮은 소득과 불규칙한 소득은 결국 이들을 경력단절시키고 예술 외의 직업을 찾도록 만들고 있다. 소수의 천재적인 예술인들만으로 전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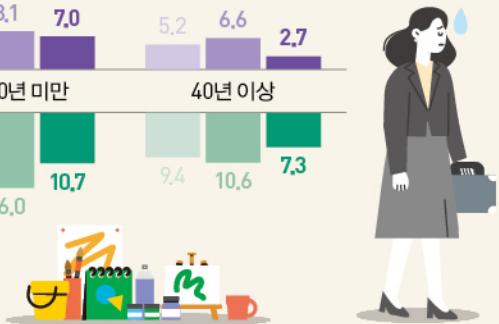


출처: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8,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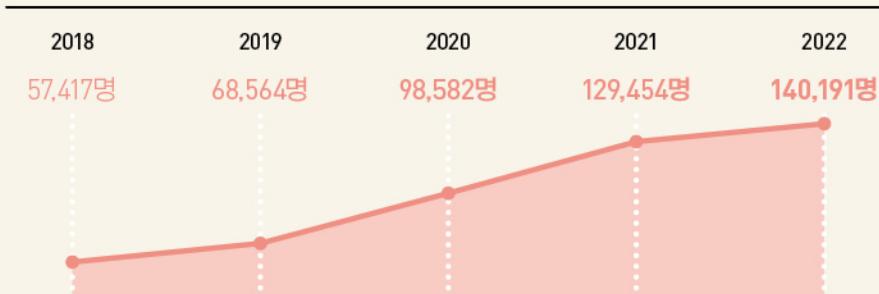
주 활동 예술분야의 활동 경력



· 「예술인 실태조사」는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며, 2013년 「예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 전면 개편된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예술인 실태조사」는 조사 모집단의 지역, 분야, 성별, 연령대의 분포를 고려한 표본을 배분, 추출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비율을 발표하고 있음.



최근 5년 예술활동증명 현황(누적)



예술활동증명 현황(2022년 6월 기준)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각종 복지지원(창작준비금, 산재보험, 사회보험료, 예술인패스, 의료비지원, 예술인상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음.
- 출처: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8, 2021), 예술활동증명현황 통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s://www.kawfartist.kr/kawf_dash/dash/html/p01.html)

그러나 최근 10년 미만 경력의 예술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예술인들은 매 조사때마다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10년 미만의 예술인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2012년 「예술인복지법」, 일명 「최고은법」이지 않을까? 2022년 6월 기준으로 누적된 「예술활동증명」 인증 예술인의 수는 14만여 명에 이른다. 약 22만 9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전국 예술인 수의 절반 이상이다. 코로나19의 여파와 2020년 12월에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영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지원에 목말라 있던 예술인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아직은 더 개선이 필요하지만 점점 나아질 것이리라고 희망하는 정부의 지원과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을 갖게 된 예술인의 활동이 맞물려 선순환하게 될 때 우리는 21세기 '신 르네상스'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내가 살아가는 공간, 그 곳의 전과 후

노상희_작가

다사다난 했던 3년여의 시간이었다. 2019년 11월 프랑스 메츠에 있는 지인의 집에 머물며 구상했던 차기 작업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은 더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기대하게 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몇 가지 생각났었고, 앞서 진행한 작업들에 대한 마무리도 11월쯤 브라질 리오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지만 미래를 확신할 수는 없어도, 2020년은 무언가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는 느낌이 그때는 있었다.

그러나 다음 해가 오면서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맞이한 것은 펜데믹 상황의 시작이었다. 계획된 일정들은 취소가 되었고, 다음으로 진행해 보고 싶었던 작업들은 마음속에 접어놓아야 했다. 나는 대전의 작은 내 작업실에 머물렀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평범하지 않게 된 일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내가 기대했던 2020년과는 많은 것이 달라진 현실이었다. 그리고 전례 없던 상황 속에서 다음 작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계 자체를 걱정하는 나를 보게 되었다. 그렇게 백지처럼 만들어진 상황에서 뜨문뜨문 들어오는 작업의뢰에 그 전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가는 대로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다. 그렇게 항상 이 전시 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속에 작업을 했었고, 펜데믹 전에 애심차게 준비했던 작업들은 다시 진행하기가 이상하리만치 어려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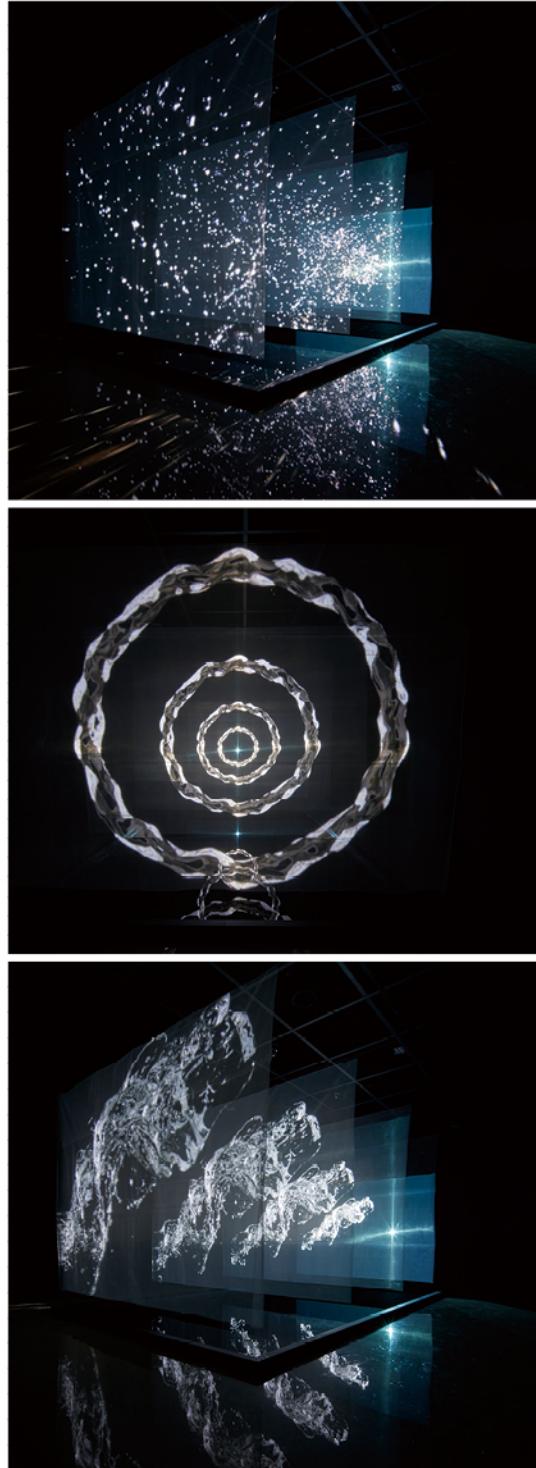
어떤 지점이 시작이었는지는 모르겠다. 프랑스 아비뇽의 아뜰리에 창문에서 비춰지던 빛의 느낌이었는지, 옛 성당 터에 고즈넉히 가라앉는 빛의 느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마주한 현실에서 다시금 작업에 몰두하게끔 만든 매개체는 공간에서 유영하는 '빛'이었다. 어쩌면 나는

흔치 않게 머물던 공간에서 마주한 따뜻한 기억을 재현해보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차기 작업에서 '빛'이라는 매개체를 두고 고민과 연구를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스스로가 편안해 하는 '공간'이라는 것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고, 외부 공간에 대한 단절과 우리 모두가 각자의 공간에 단절되어 외부와의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벽과 마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고민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펜데믹 상황 전과 후에 과연 내가 사는 공간, 우리가 사는 공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 시금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기도 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뀌었다. 공간도 바뀌었고, 사람들의 일상도 바뀌었고, 내가 자연스럽게 구축해 놓은 작업의 세계도 바뀌었다. 그렇게 내가 사는 도시도 바뀌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공간과 빛'이라는 두 가지가 교차하며 보여주는 다양한 변화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바라보는 현실세계였다.

2022년,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회복의 기지개가 펴지고 있다. 3년 전의 내가 그렸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현실이지만, 나는 다시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 세계를 바라보려 한다. 대전은 어릴 적부터 살아온 곳이지만, 언제나 이방인 같은 느낌을 자울 수 없었던 곳이기도 했다. 이상한 낯설음은 어렸던 나에게도 조금은 나이를 먹은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도 내가 사유할 공간이 여기에 있고, 작업의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다.

이제 나도 사뭇 달라진 현실의 영향을 받아 방향이 약간 틀어진 작업과 함께 기지개를 켜려고 한다. 이 도시가 변해가는 모습과 그 안에서 내가 잠시 머물 공간의 모습을 힘의한 어떤 작업을 진행해 보려고 한다. ☺



Flat Water_노상희, 2022

우리들의 연말파티를 기억하며

빈안나_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개인적으로 '대전의 청년작가들'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밤이 있다. 수년전 어느 겨울 밤, 알고 지내던 작가에게 대전의 청년 작가들이 연말파티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대전 원도심의 텁텁한 골목을 지나 한 작업실을 함께 방문했었다. 미술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대전에서 그래도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에 큰 기대를 하면서, 허름한 건물 한켠에 자리한 소박하지만 아티스틱한 공간에서 젊은 작가들이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고 있는 곳에 들어섰다. 운 좋게도 그곳에서 작품으로만 알고 있던 작가 또한 만날 수 있었는데 그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 같은 건물 본인의 작업실에서 흔쾌히 작품들을 하나둘 해포¹⁾해 보여주었다. 작업에 대한 이런 저런 소회를 주고받았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작업을 소개하는 작가의 목소리에 반가움과 열정이 치올랐었고, 간간히 어떤 의기소침함도 느껴졌다. 오래된 건물, 겨울 한기가 느껴지는 작업실

의 시멘트벽을 대하여 홀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젊은 작가의 막막함이 내게도 고스란히 닿았었다. 되돌아보면 그즈음이 전국지자체들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작가들의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 같다. 여전히 여러 보완될 부분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체계가 자리 잡하고 그 결실 또한 가시화되는 시점이다. 작업을 하는 작가들에게 본인의 작업세계를 보여주는 전시의 기회만큼 중요한 지원책이 있을까? 대전에서는 대전시립미술관의 <넥스트코드>, 이응노 미술관의 <아트랩대전>,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청년작가들에게 대외적으로 작품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넥스트코드>의 경우 작가 공모와 전문가심사를 통해 참여작가가 선정되며, 개관以來 지금까지 20여년 간 140여명의 역량있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왔다. 최근 들어 대전시립미술관

<넥스트코드>에서 전시했던 작가들이 주요 미술 전문지와 타 미술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온다. 지역미술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립미술관의 일원으로서 <넥스트코드>가 청년작가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데 유의미한 발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전의 청년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전시에 초대되고 여러 관심들을 원동력으로 작품에 매진하여 일궈내는 변화와 도약은 더더욱 의미가 크다.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지역 미술계에 가져온 새로운 파장 역시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 좋은 기류를 타고, 전시뿐 아니라 청년작가들의 작업에 새로운 자극과 계기가 될 어떤 장치들이 있을지 다시금 고민하게 되는 요즘이다. ☺

1) 작품포장을 풀다

사진) 2022 넥스트 코드

(좌부터 김소정, 김은혜, 김현석, 백요섭, 장철원)

기간_2022년 11월 15일~2023년 1월 29일

장소_대전시립미술관



다신 돌아오지 않을 그 여름을 생각하면서

권순지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한나님께

2019년 여름일 거예요. 규방글방에서 한나 님과 다른 글방원들과 서로의 글을 나누고 자연스레 일상과 마음마저 나눴던 때가. 저는 그때 한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글을 쓸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겸하고 있던 때였어요. 또 연년생 어린이 둘을 돌봐야 하는 사람, 보호자가 늘 붙어있어야 하는 나이의 아이들을 떼 놓고는 설명되지 않는 일상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어느 틈도 없는 제 세계에 한나 님이 운영한다는 글방 모임이 들어왔습니다. 글 쓰는 여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커던 것 같아요. 속 깊은 곳에서 나온 글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부끄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었지만 글 쓰는 여자들을 만나면 제가 좀 웃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설렘은 글을 더 잘 쓰고 싶다는 오래된 욕망에 불을 지폁어요. 그 욕망은 인정받고 싶었던 제 과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든지 스스로 잘하던 제가 집에서 유일하게 혼났을 때는 수학 문제를 잘 못 풀 때였어요. “수학을 잘해야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거다.” “수학을 잘해야 머리가 똑똑한 거야.” “수학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수학은 그렇게 처음부터 저와 관계 맺는 데 실패했습니다. 같이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편장을 주었던 아빠가 저를 칭찬하는 일은 학교나 외부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상 받아왔을 때 말고는 없었어요. 모두 글짓기 대회였는데 상을 받고 제가 쓴 글을 운동장 조회대에 올라 전교생 앞에서 낭독할 때는 인정받는 기분에 고무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기억하는 유년 시절의 처음부터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어요. 아빠에게 칭찬받고 여기 저기서 상을 받으며 다른 이유를 더 생각하지 않고 제 마음은 그냥 직진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며 돌이켜보니 유년 시절 저의 글쓰기는 제가 사랑을 갈구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던 같아요. 내향적인 제가 마음을 펼쳐 보이는 일은 원고지에 글을 쓰거나 좋아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유일했습니다. 물론 저의 글쓰기는 중학생이 되면서 멈춰버렸지만, 초등 6년의 세월은 쓰는 일을 사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저랑 열 살 이상 차이 나는 사촌 언니를 흡모했던 때이기도 했어요. 제가 초등 고학년일 때 대학생이었던 언니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전국 여기저기를 여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행 중에 제가 사는 시골에도 다녀갔어요. 우리 집엔 언니의 의할머니가 살고 계셨고, 할머니를 뵙 겸 다녀갔던 것으로 기억해요. 태생이 서울이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언니의 짧게 커트한 갈색 머리는 당시 제 눈에 정말 지적이고 세련돼 보였습니다. 여자들끼리 차를 끌고 여기저기 여행한다는 사실도 우물 안 개구리였던 시골 소녀에게 꽤 문화 충격이었고 그건 곧 동경의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언니가 편히 쉬다 가라고 집에 있는 이불 중 가장 감촉이 좋은 이불을 깔아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서 하루 묵고 간 언니가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사의 유명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작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나서는 제 일인 것처럼 기뻤죠. 언니의 취직을 계기로 저는 글 쓰는 일이 괜히 더 멋지게 느껴졌어요. 제 꿈을 방송작가로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제 미래였어요.

저는 방송작가가 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읽고 쓰는 일을 이어가고 싶어 공부도 시작했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이런저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언니는 결혼 후 방송국 일을 그만뒀어요. 이후 한동안 글을 못 쓰던 언니는 최근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여 동화작가로 데뷔했습니다.

성매매집결지에서 프로젝트를 같이 하며 처음 알게 된 한나 님도 과거의 제 언니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그 뒤로 한나 님이 쓴 글을 읽으며, 규방글방 모임에서 함께 읽고 쓰면서 저 역시 계속 쓰는 사람이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어요. 제가 쓰는 글을 한나 님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글 쓰는 여자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제 부친의 예언대로 저는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지만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아는 사람이라 지금의 제가 좋습니다. 이런 제게 먼저 다가와 준 한나 님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한나 님이 제게 처음 편지 써주었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이 글을 빌어 고백하자면, 살아있는 날까지 저는 당신의 영원한 독자이고 싶어요.

권순지 드림 ⓧ



그것 말고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서한나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순지님께

“영원한 독자이고 싶습니다.”라는 프로포즈를 들은 저는 며칠 듣든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순지님이 욕망이라는 단어를 쓴 글을 기억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욕망에 전염되는 것 같아요. 어디론가 달려가는 에너지는 욕망에서 나오고요. 제가 가장 무기력했던 때는 어디로도 욕망이 솟지 않던 때였어요.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여자들은 글을 읽고 쓰게 돼요. 하지만 베지니아 울프가 말했던 방과 돈 이야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글 쓰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느껴도 되나? 나만 생각하는 것 아닐까? 여자 작가는 자기검열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요. 모두들 자신으로부터 출발할 뿐인데도요.

글쓰기 모임에서 저는 자유로웠어요. 어떤 글이든 어떤 식으로든 쓸 수 있고, 이해해주는 동료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실 합평보다도 끝나고 다 같이 술 마시러 가자고 일어나면 시간에 가장 열광했지만요. 오늘은 막걸리집에 갈지 호프집에 갈지 그런 것을 정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가게 되는 날에 더없이 기뻤어요.

“그곳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옆에 함께 앉을 사람들과 오랜 기간 우리를 압도해온 문제를 말하기 위해 한 장소에 모였기 때문이다.” 순지님은 “도시의 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대전역 성매매집결지에 관해 기록한 책을 출간한 뒤 열린 북토크 자리에 관한 글이었어요. 제가 이 글에 마음을 빼앗겼던 건, 그게 뭔지 알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싶다는 마음이 긴장감을 쌓아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생겨나는 특유의 에너지가 글에서 느껴졌어요. 독자와 작가는 손가락에서 뻗어 나온 실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영원한 독자가 되기로 약속하는 것만큼 사랑에 가까운 게 있을까요? 연인은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고, 열정은 식고, 저는 철새 같은 독자이지만, 그래도 책장을 정리할 때 가장 잘 보이는 칸에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정리하는 것은 잊지 않는답니다.

글쓰기 모임에는 계속해서 그런 여자들이 와요. 더 이상 멀뚱한 표정 앞에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벼동거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여자들. 날이 갈수록 허물을 벗는 사람들의 문장 앞에서 전율합니다. 글을 쓰면서 작가가 자신을 발견할 때, 독자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번 카페에서 만났을 때 순지님이 물어보셨죠. 어떤 글을 쓰고 싶냐고. 저는 무절제, 방종함을 무기로 삼는 글을 써보고 싶다고 했어요. 삶이 주는 우연성에 힘껏 응답하고 싶고, 그것을 글로 쓰고 싶어요. 그렇게 쓰고 발표하기 위해서는 내 존재를 인정받는 경험이 필요한데,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우리 글을 알아봐 주는 독자가 있으니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 저에게 써주신 편지 기억하세요? 편지 끝에 두서가 없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틀간 글 안 쓰고 “스카이캐슬”에 빠져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어요.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시간이 모여 우리를 다시 책상 앞에 돌아와 글을 쓰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저는 칭찬과 비난 어느 쪽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저 나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글을 쓰고 싶냐는 대화에서 시작해 우리가 나누었던, ‘나’에 대한 이야기는 욕망이 자신 안에서 솟아 나온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어떤 강박도 없이 우리 자신이 되어요. 우리는 글을 쓸 수밖에 없게 태어났어요.

서한나 드림 



피부에 새기는 예술

이유진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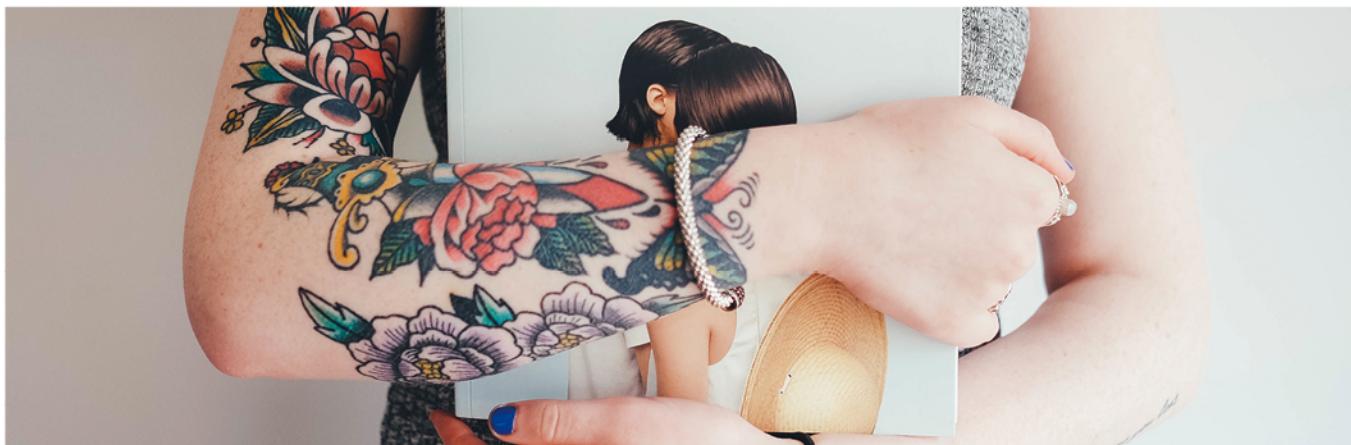
나의 몸 이곳저곳엔 수많은 타투가 새겨져 있다.

자해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커버업 타투로, 집안에서는 긴 비자를 입어 그것들을 가린다. 어느 날, 무방비 상태로 욕실에서 나온 내게 할머니는 허벅지에 새긴 타투에 대해 묻는다. “그런 거 하려면 얼마나 드냐.”

할머니는 한참 망설이다 자신의 몸에도 타투를 새겨달라고 말한다.

‘지우고 싶은 게 있다’고 그녀는 덧붙인다.

– 성해나, ‘오즈(2019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당선작)’ 중에서



타투를 할까 고민하던 나에게 한 친구가 그랬다. 그 타투를 가진 할머니가 된 너를 상상해보라고. 작고 귀여운 타투를 한, 할머니가 된 나를 상상해봤더니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타투를 하기로 결정했다. 타투를 받기 위해선 일종의 ‘접선’이 필요하다. 원하는 타투이스트의 SNS 계정을 찾아 연락하고 디자인·날짜 등을 조율한다. 그리고 작업실의 주소를 받아 약속한 시간에 방문해야 한다. 1992년 대법원이 타투는 의료행위이며, 비의료인에 의한 타투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베껴온 것인데, 정작 일본은 2020년 타투를 합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타투이스트를 유망 직업으로 선정했고 ‘문신업’으로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지만, 등록 후 세금 신고를 하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의사만 또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것인가? 이해하기 어렵

다. 표본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15.3%가 문신을 경험했고 30.7%는 반영구 화장(눈썹·아이라인 문신 등)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중 2.7%만이 병·의원에서 시술을 받았다.¹⁾

타투 작업실은 홍대와 연남동 등 서울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타투이스트의 수도 늘어나고 있어 인스타그램에 #대전타투#를 검색하기만 하면 다양한 스타일의 타투이스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 작업자의 경우 안전을 위해 여성 고객·여성 동반 고객만 받거나, 다른 타투이스트와 함께 작업실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타투 작업을 노동으로 인정받기 위해 설립된 타투이스트 노동조합 ‘타투 유니온’에 따르면 저희 내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70%에 달한다. 타투이스트이자 조합의 지회장인 김도윤(@tattooist_doy) 씨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작업자가 신고 하려고 하면 타투업부터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며 “지회 내 여성 조합원이 많은 이유는 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거나 기댈 곳이 없어서 많이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²⁾

방송에선 아직 반창고나 모자이크 등으로 타투를 가린다. 그러나 ‘저게 가린 건가?’싶은 경우도 많고, 때로는 연예인의 타투를 토크 주제로 삼기도 한다. 현재 국회에는 타투 비범죄화를 위한 6건의 관련법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타투 작업과 관련하여 신고를 당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에 들어갔다. 그리고 3일 만에 1만 장의 무죄판결서가 접수되었다.³⁾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2019)’

2) 여성신문, ‘불법’이라는 이유로…여성 타투이스트 들 성희롱·협박에 노출

3) 타투유니온 보도자료(2021.9.8.)



맞배집: 서로 맞절하는 공간

김다영_맞배집 공동대표



맞배집은 대전의 원도심인 대흥동에 위치한 작은 복합문화공간이자 비건 바(Vegan Bar)다. 오래된 건물의 2층에 있어 초행길인 분들에게 종종 위치를 묻는 전화를 받는다. 맞배집을 찾기 위해 서는 먼저 대흥동 480-3번지 건물의 나무 간판이 붙어있는 입구를 찾은 후 계단을 한층 올라와 왼쪽으로 깊숙이 들어오면 보이는 붉은 나무 문 안에 있다. 나무 문을 열면 건물 안에 지어진 맞배지붕, 한지가 발린 나무 창호, 붉은 벽돌 바닥, 인센스 향, 토분 안에서 각자의 특성대로 자라난 식물들이 손님을 맞이한다. 활기찬 대흥동 속에서 고요를 찾을 수 있는 숨겨진 공간이다. 마음에 드는 테이블을 골라 앉으면, 그 날의 날씨와 분위기, 배경음악, 일행에 맞춰 시집을 추천해준다. 주문한 음식과 술이 나오기 전까지의 시간을 그 날의 시가 채워주길, 알맞은 문장이 당신에게 발견되길 바라는 주인장의 배려다.

대전 중구 보문로 260번길 17, 2층
홈페이지 matbaezip.com
인스타그램, 트위터 @matbaezip



“

『맞배집』은
주류 미디어에서
소개되지 않는,
목소리 낼 곳이 필요한,
안전한 공간에서 나 자신
그대로 있고 싶은 사람을 찾고,
또 만나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싶다.

”

한국의 고유 지붕 양식인 맞배지붕을 가진 집을 '맞배집'이라고 부른다. 표면적인 의미에 더해, 상호 존중의 의미로서 서로 맞절한다. '맞배하다'의 의미를 담아 공간의 이름을 지었다. 이곳에서 만나는 분들과 사장과 손님, 혹은 사회적으로 불리는 호칭에서 벗어나 같은 위치에서 교류하고 싶은 마음을 담겨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건네고, 대화를 나누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공간을 만들고 채운다.

맞배집은 평소에 비건 안주와 와인, 한국 술,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비건 바이지만, 종종 주말에는 공연과 북토크, 전시와 같은 이벤트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이다. 2018년 5월부터 '연월'이라는 이름의 공연 시리즈를 매달 열고 있다. '연속의 달, 인연의 달'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연월' 공연에서는 우리가 애정하고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무대를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공연을 열기 어려웠던 몇 달을 제외하고 꾸준히 한 달에 최소 1회, 많게는 매주 '연월' 공연을 하고 있다. 대중의 인기라는 기준보다 우리가 정말 소개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아티스트를 초대하자는 마음으로 '연월'을 준비하고 있다. '연월'이 맞배집의 큐레이션이 담긴 공연 시리즈라면, 이번 6월부터 시작하는 '붉은 방' 시리즈는 오픈 마이크 공연이다. 붉은 방은 무대와 기회가 필요한 아티스트를 위한 자리다. 대전과 비수도권에서 음악 활동을 이어 나가길 원하는 아티스트에게 경력과 상관없이 자리를 마련해 줄 계획이다.

이 외에 비정기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작년에는 맞배집에서의 인연으로 알게 된 세 명의 여성 작가 '논센소', '진(JIN)', '피동보다 능동'과 함께 '심안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아트 제품(사진 포스터, 캔버스 프린팅, 니트 블랭킷, 패브릭 포스터 등)을 만들었고, '연월'로 만난 음악가와 콜라보하여 슬픔과 우울

이라는 감정을 다루는 첫 번째 컴필레이션 앨범 '실'을 발매하기도 했다. 심안랑 아트 제품은 맞배집 홈페이지(matbaezip.com)에서 볼 수 있고, 컴필레이션 앨범 '실' 음악은 지니, 멜론, 애플뮤직 등 음악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만 교류하던 맞배집이 온라인에서도 사람들과 만난 새로운 도전이었다. 올 해에도 두 번째 컴필레이션 앨범으로 대전에서 활동하거나, 활동을 시작하려는 여성 아티스트와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여성 아티스트를 연결해 서로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랑과 존경을 담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편지의 말미에 적는 인사말, '사랑과 존경을 담아'처럼 총 12명, 6팀의 아티스트가 서로에게 놀러 쓸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어떤 감동을 주게 될지 기대하고 있다. 10월 중에 음악을 공개하고, 11월에는 맞배집에서 <사랑과 존경을 담아>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맞배집은 주류 미디어에서 소개되지 않는, 목소리 낼 곳이 필요한, 안전한 공간에서 나 자신 그대로 있고 싶은 사람을 찾고, 또 만나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싶다. 내 이야기를 온전히 나눌 곳. 내 모습 그대로 쉬어갈 곳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찾아오시길 바란다. 이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맞배집은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자리 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w

꿈과 도전은 어떻게 좌절하고 실현되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템포가 아니라 나의 템포,〈위플래쉬〉
알을 깨고 나오려면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블랙 스완〉

지나라_스토리콘텐츠 말·글 대표

Whiplash

청년과 문화예술은 닮았습니다. 정답이 없는 것도 그렇고, 도전과 열정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린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땀 흘리는 청년의 모습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아름답게 그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그 목표가 문화예술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영화가 이렇게 흥미진진한 소재를 놓칠 리 없습니다. 주인공들은 좌절과 절망을 반복하다 끝내 포기하고, 또 누군가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관객은 주인공의 그런 모습을 보면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며, 때로는 벽찬 해방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문화예술을 다룬 영화의 치명적인 매력입니다.

〈위플래쉬(Whiplash, 2014)〉는 템포에 관한 영화입니다. 어른의 템포와 청년의 템포, 권위자의 템포와 권위에 도전하는 이의 템포. 영화 내내 이것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이 벌어집니다. 위플래쉬의 템포는 주인공들의 '인생'과 동음이의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템포를 놓는 순간, 상대방의 템포를 인정하는 순간, 패자가 되어버리는(패자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위) 재즈밴드 지휘자 플렛처(오른쪽)은 앤드류를 최고의 드러머로 만들기 위해 극한으로 내몬다.

(아래) 주인공 앤드류는 어릴 때부터 드럼에 재능을 보였고, 대학에 입학해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쉬지 않고 연습에 몰두한다.

재즈밴드 지휘자인 플렛처(J.K. 시몬스 분)는 조금이라도 자신 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폭언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만하면 잘 했어”라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가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드러머를 꿈꾸는 앤드류(마일즈 텔러 분)는 어릴 때부터 드럼에 재능을 보였고, 대학에 입학해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쉬지 않고 연습에 몰두하는 청년입니다. 플렛처는 앤드류를 최고의 드럼 연주자로 만들기 위해 극한으로 몰고 갑니다.

‘더블타임 스윙’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리듬을 수십 번 반복하는 모습을 보며 관객은 이 영화의 제목이 왜 ‘위플래쉬(whiplash, 채찍질)’인지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10분입니다. 폭압적인 교수법으로 앤드류를 극한으로 몰고 갔던 플렛처, 위대한 드러머를 꿈꾸면서도 플렛처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폭압에 맞섰던 앤드류가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앤드류는 즉흥 연주를 통해 플렛처의 템포에 엇박자를 높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템포로 무대를 이끌어가죠. 마침내 템포는 하나가 됩니다. 그것은 화해일 수도, 용서일 수도, 극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앤드류가 자신의 템포로 밀어붙여 마침내 감동적인 무대로 만들고, 플렛처도 그것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영화 <블랙스완>의 한 장면. 주인공 니나는 백조와 흑조의 연기를 하며, 자신도 알지 못했던 어두운 내면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한다.



〈위플래쉬〉가 템포에 관한 영화라면, 〈블랙 스완(Black Swan, 2010)〉은 날갯짓에 관한 영화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는 이런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알은 새의 세계입니다. 알을 깨고 나와야 새는 성장하고 날갯짓을 하고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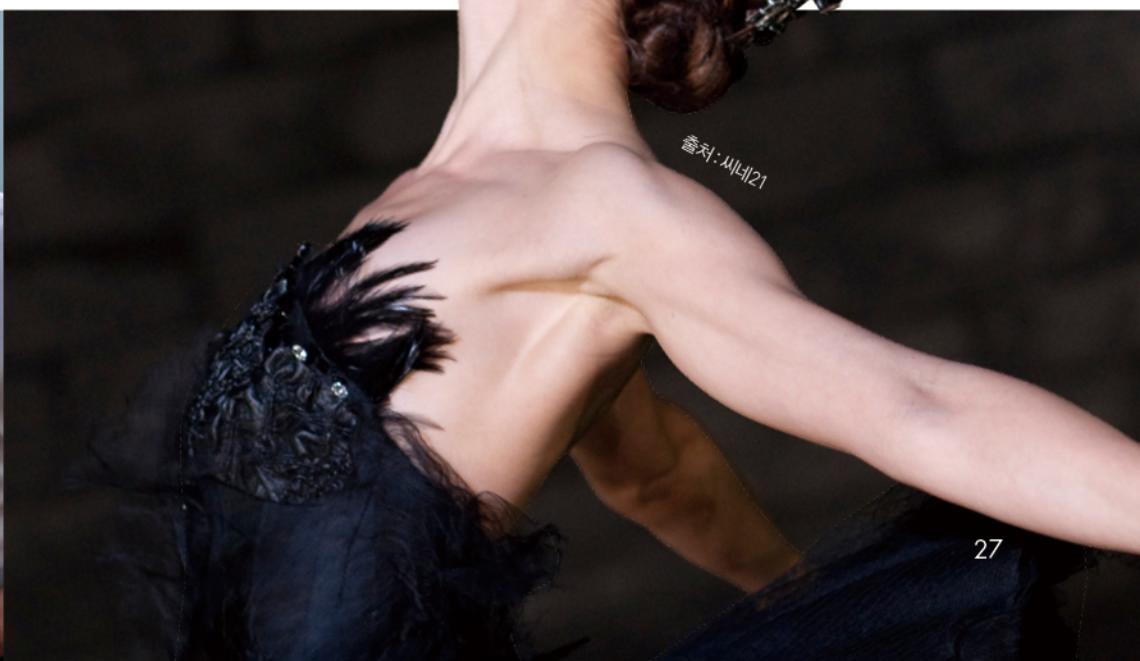
주인공 니나(나탈리 포트먼 분)는 발레리나입니다. 완벽한 춤동작을 위해 성실하게 연습하는 노력파이자 테크니션이지만, 정해진 삶의 틀에서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니나에게 어느 날 모든 발레리나가 선망하고 꿈꾸는 ‘백조의 호수’ 프리마돈나로 선발되는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백조의 호수〉에서 프리마돈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백조(오데트), 그리고 사악하고 도발적인 흑조(오딜)을 동시에 연기해야 합니다. 모범생처럼 산 니나에게 백조인 오데트는 가깝지만, 흑조인 오딜은 너무 먼 존재입니다.



영화 〈블랙 스완〉의 한 장면.
백조와 흑조를 동시에 연기해야 하는 주인공 니나의 욕망은 점점 집착이 되어 간다.

가녀린 백조와 관능적인 흑조, 니나는 1인 2역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완벽을 향한 그녀의 욕망은 점점 집착이 되어가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파괴할 것 같은 불안감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도 알지 못했던 어두운 내면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고 흑조를 탐한 백조의 핏빛 도발이 시작됩니다.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하지만, 그것이 내면의 자신감과 성숙함이 동반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영화는 보여줍니다.

영화는 말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템포를 찾고(위플래쉬), 알을 깨고 자기 스스로에게서 벗어나야 한다고(블랙 스완). 청년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견뎌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품성 면에서도 두 편 모두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봐도 지루하지 않은 영화들입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조각가

하얀 대리석 무리들

: 해리엇 호스머

김인희_인문학 강사, 프리랜서



“

소년의 모습을 한 숲의 신
 ‘판’이 나무 그루터기에 기대어
 잠든 모습을 조각한 것이었다.
 숲의 신은 나른한 모습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데
 그 곁에 어린 반인반수가
 귀엽게 장난을 치고 있었다.
 이 작품은 당시의 관행대로
 목신이 벌거벗은 채 거의
 전신을 드러낸 모습이었다.

”

1865년 로마의 어느 미술 전람회에 〈잠자는 목신牧神〉이라는 작품이 공개되었다.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을 묘사한 이 작품은 당시 유행하던 신고전주의(고대 그리스 로마의) 양식의 전형적인 조각상으로, 소년의 모습을 한 숲의 신 ‘판’이 나무 그루터기에 기대어 잠든 모습을 조각한 것이었다. 숲의 신은 나른한 모습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데 그 곁에 어린 반인반수가 귀엽게 장난을 치고 있었다. 이 작품은 당시의 관행대로 목신이 벌거벗은 채 거의 전신을 드러낸 모습이었다. 당시의 아카데미적인 관행에 충실한 작품이었지만 놀랍게도 대중의 반응은 상당히 격렬했다. 한 마디로 이런 ‘음란한 작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던 것이다. 대체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사실 서구 미술에서 미켈란젤로 아래로 신과 여신을 주제로 나신의 모습을 조각하거나 그리는 것은 거의 정석에 가까운 관행이 되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작가가 ‘남성’일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놀랍게도 잠자는 목신을 조각한 미술가는 여성이었던 것이다. 대중이 분노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여성 작가가 남성의 벌거벗은 몸을 조각했다는 것. 남성 작가가 벌거벗은 여성의 모습을 조각하거나 그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런 전통이었던 서구 미술계였지만 절대로 그 반대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아이러니 하게도 현실이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여자 미켈란젤로는 근본적으로 나올 길이 막혀있던 시대에 용감하게도 남성 누드를 조각한 여성 조각가 해리엇 호스머는(1830~1908) 미국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조각가의 길을 걸었던 작가들 중 한 사람 이었다. 여성에게는 기초적인 공예교육 외에는 미술 분야에 대한 고등교육이 금지되었던 시절에 미술가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녀는 일찍부터 직업적인 전업 미술가가 되기 위한 길을 밟아왔다. 당시 여성에게는 상속권도 거의 인정되지 않았고, 대학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도 어려웠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는 길도 막혀있던 시대였으므로, 여성이 미술이든 그 어떤 분야든 사회적으로나 경

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기회를 갖는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호스머는 그 별을 땠다. 그녀의 아버지가 호스머의 길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던 것이다. 성공한 의사였던 부친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그녀는 유명 작가들의 화실에서 미술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정확한 해부학을 공부하기 위해 심지어 의대에 입학하기도 했다. 여성에게는 누드 실습이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체를 정확하게 묘사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이다.(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러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미술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권총을 소지하고 홀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히 오가며 실기를 연마하던 호스머는 보수

❶ 잠자는 목신(1865)

대리석 · 높이 127cm ·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미술관
 · 잠자는 신의 모습은 헬레니즘기에 유행

❷ 이사벨라 여왕기념 동상

·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 당시 캘리포니아 빌딩에 전시된 모습





적인 미국보다 당시 미술에서는 유럽을 이끄는 선두국가였던 이탈리아에 유학하기 위해 먼 길에 오른다. 독자적인 미술의 전통이 거의 없다 시피했던 신대륙 미국의 미술가들에게 구대륙인 유럽의 이탈리아나 프랑스 유학은 관행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여성이 홀로 외국에 나간다는 것 역시 당시에는 금기 사항이었으므로, 이번 유학길에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호스머는 1852년 22세가 되던 해 아버지와 그리고 일생의 파트너가 되는 친구와 동행하여 로마에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절부터 그녀의 본격적인 예술 인생이 시작되었다. 로마에서 호스머가 얻었던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자신과 뜻이 같은 동료들을 만나 조각가 그룹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이들의 인연은 – 작가 헨리 제임스(1843~1916)가 ‘하얀 대리석 무리’라고 별명 지은 이들 조각가들 – 모두 8명으로, 놀랍게도 모두 여성이었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흑인 인디언 혼혈인 노동계급 출신의 조각가 애드모니아 루이스, 1844~1907) 모두 백인 여성들이었던 이들은 당시 산업자본의 부흥을 상징하듯, 미국의 부유한 중산층 출신들이었다. 이는 이 시대에 여성이 ‘한 사람의 독립적인 미술가가 된다’는 것

은 본인의 투철한 의지만큼이나 가족으로 상징되는 외부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마디로 두터운 사회적 장벽을 뚫을 수 있는 가족의 경제력이 그녀들의 예술 인생의 기본이 되었음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다른 부르주아 중상류층 여성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따르며 가정에만 머물렀던 반면, 이들 여성 조각가들은 일생 동안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플로렌스 프리먼, 1836~1883)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고 (마치 미켈란젤로가 그랬듯이) 오로지 예술가의 길을 걸었다. 그들이 일평생 예술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데에는 비단 가족의 지원 외에도 함께 공유하는 예술가로서의 동지의식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일례로 이들은 당시 여성에게는 금기였던 늦은 밤의 홀로 하는 외출이나 클럽이나 레스토랑을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동행하는 남자 없이도 로마 인근 교외를 말을 타고 달리는 등 사생활 측면에서는 마음껏 자유를 누렸다. 게다가 예술에 대한 철학도 함께 공유했는데 – 이들 8명의 조각가들은 모두 신고전주의 사조에 속했다 – 이러한 연대의식은 일생 동안 그들 스스로를 지켜주었던 것이다. 이들이 살았던 19세기 중후반 서구 사회는 여성의 사회적 평가를 중요시하고 특히 여성에게만 중

산층의 엄격한 도덕 규범이 적용되던 시대였다. 이탈리아의 로마가 보수적인 미국 사회에 비해 자유로웠다 하더라도 만일 성적 스캔들(알레로로댕과 제자 카미유 끌로델의 경우처럼)이 있었다면 절대 용납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세간의 우려가 무색하게도 이들의 또 다른 별명은 '수녀 단체'였다. 그만큼 호스머를 비롯한 8명의 여성 조각가들은 그들의 예술 세계에만 집중했을 뿐 남성들과의 사적 관계는 적절히 차단하며 그들만의 유대를 다져나갔다. 이러한 연대 의식은 이후 미술계의 남성 평론가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의연히 맞설 수 있는 정신적 여유를 가지게 했는데, 일례로 호스머는 자신의 문하생으로 들어온 여성 조각가 지망생에게 "장차 웃음거리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충고를 할 정도였다.

서두에 언급한 '잠자는 목신'의 사례처럼 남성 평론가들은 이들의 조각가로서의 기본 제작 능력을 의심하는 한편 작품에서 조금이라도 파격적이거나 관례를 벗어나는 표현이나 소재를 선보일 경우 집요하게 말을 지어내고 공격을 끊이지 않았는데, 이에 맞서 싸우거나 무시하는 일은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적대적인 평론가들 중에는 헨리 제임스나 나다니엘 호손 같은 당대 미국을 대표하는 걸출한 문인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동료 예술가들이라 할지라도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함께 할 수 없는 큰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이 만든 소문 중 가장 악랄한 것은 여성 조각가들 뒤에 사실은 솜씨 좋은 남자 석수 장인이 있어서 실제 그녀들의 작품은 바로 그 익명의 남자가 만든 것이라는 (르네상스 아래로 여성 미술가라면 끊이지 않고 시달렸던) 헛소문을 계속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에 맞서기 위해 호스머는 논란이 있을 때마다 지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당시 크게 일어나던 여성참정권 운동에 부응하는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 냈다. 사실 호스머를 비롯한 동료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호스머는

❸ 사슬에 묶인 제노비아(1859)

대리석 · 112.4×35.6×45.7cm ·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 미술관

· 로마에 맞서다 몰락한 고대 팔미라의 여왕을 여신같은 위엄있는 모습으로 묘사하여 발표 당시 화제를 모은 작품

❹ 다프네(1853)

워싱턴D.C. 국립 미술관 도서관

· 태양의 신 아폴론의 사랑을 거부하고 월계수 나무로 변한 님프

❺ 메두사(1854)

대리석 · 높이 70cm ·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예술대학

· 신화 속의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메두사가 신의 저주를 받아 괴물로 변하는 여인의 모습을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표현했다. 기존의 메두사들은 모두 경악에 빠져 비명을 지르거나 통곡을 하는 모습이었다.

❻ 베아트리체 첸치(1857)

대리석 44.1×106.3×43.8cm · 시드니 사우스웨일즈 주립 미술관

· 자신을 성폭행하던 부친을 살해하고 혼속살인죄로 처형된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이다. 고통스러운 인물의 심정을 깊은 서정성으로 표현했다.

로마 제국에 맞섰던 팔미라의 여왕 제노비아(240~274)나 콜럼버스를 후원한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 1세(1451~1504) 같은 역사 속에 큰 업적을 남긴 여성 위인들 혹은 메두사나 다프네 같은 신화와 전설 속의 뚜렷한 개성을 지닌 여인들과 베아트리체 첸치(1577~1599) 같은 가부장제의 폭력에 희생된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녀가 만든 권위와 위엄에 찬 여성들의 이미지는 상업적인 성공을 바라고 남성 조각가들이 만든 기존의 성적인 여성 이미지들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이들 작품들은 그녀의 대표작이 되었다) 호스머는 조각가였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작품에 대상이 가진 굳은 의지와 신념 그리고 독특한 개성을 부여했는데 그것은 바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런 신념은 생애 내내 호스머에게 다가왔던 많은 장벽을 넘는 원동력이 되었다. w



어떤 여자가 있다. 여자는 매일 새벽 자신의 무거운 몸을 일으켜 집 밖으로 내보낸다. 그날도 땀 흘려 운동한 여자는 돌아와 씻은 뒤 물과 함께 영양제를 입에 털어 넣는다. 잠이 부족해 누적된 피로는 온몸을 바닥에 붙이고 싶게 만들지만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 애쓴다. 커피 한 잔을 내린다. 뜨거운 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책상 앞에 앉아 커피를 두 모금쯤 입에 머금었다 삼키기를 반복한다. 동시에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던 여자는 ‘오늘도 자신을 잘 구해냈다’고 생각한다. 여자에게 삶은 재난과 같은 것. 어느 한순간도 자기에게 집중하기 어려워진 여자는 매일의 시간이 스스로에게서 이탈되어버렸기에, 언젠가부터 사는 일을 재난의 굴레라 여기게 되었다. 자기 의지대로 되는 일을 경험하고 싶어진 여자는 책상 앞에 앉기 시작했다. 뜻밖의 일들만 연속되는 굴레에 영영 갇히기 싫어, 무작정 쓰기 위해.

커피를 네 모금쯤 넘긴 뒤 여자는 드디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이제 여자는 자신이 되고 싶은 여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한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언어를 찾아가는 중인 여자는 곧 이 글을 쓰는 나이고 실비아 플라스였다. 그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울프이자 프리다 칼로이며 또 가네코 후미코… 이 밖에도 수많은 여자이기도 하였던 사람. 쓰는 행위만이 사는 일에 의미를 일으킨 여자는 고통의 격정을 견디며 쓰는 사람으로 살아남았다. 그리하여 쓰게 된 여자.『쓰고 싸우고 살아남다』에는 글쓰기에 자기 삶을 던진 스물다섯 명의 여자가 등장한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 책을 읽을 수는 있었지만, 여자로 태어났다는 단지 그 하나의 이유로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던 버지니아 울프는 글을 쓸 때만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느꼈다. 작가가 되고 나서는 매일 열 시간 이상 읽고 쓰는 사람으로 살았다(p.41).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실비아 플라스는 어떠한가. 결혼제도에 편입함과 동시에 더는 글을 쓰지 못하게 되어 “분노에 목구멍이 메고, 온몸에 독소가 퍼져나가느”(p.83) 심정으로 살다 생을 마감했다. 반면에

Book Review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
저자_장영은

그리하여 쓰는 여자가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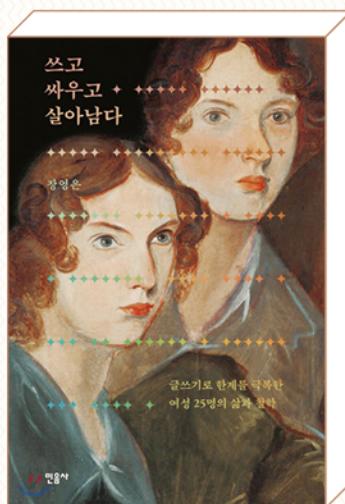
권순지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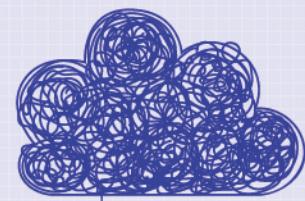
함께 글을 썼던 남편 테드 휴즈는 결혼 후에도 거장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다. 영화『박열』(2017)에서 박열의 동지이자 배우자로 등장했던 가네코 후미코는 영화 속 재현과 달리 이 책에서는 온전한 한 인간으로 나타난다. 글을 써서 자기 뜻을 이룬 여자로 말이다. 가네코 후미코는 “운명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덕에 나는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외치며 자신을 버린 아버지와의 오랜 갈등에 스스로 안녕을 고했다(p.179). 그것은 줄기차게 이어간 배움과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운命을 개척한 여자의 거짓 없는 고백이었다.

이 밖에도 “내가 되고 싶은 여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평생 공부와 예술을 멈추지 않은 초현실주의 화가 프리다 칼로(p.65). 글을 써서 집을 사고, 그 집에서 다시 “미친 듯이 글을” 쓴 마르그리트 뒤라스(p.15). 자신의 책들이 세상에서의 자기존재에 대해 가장 잘 말해준다던 나딘 고디머(p.172). 또 “글을 쓰지 않는 내 삶의 터전은 아무것에도 없었다”며 어떤 고통 속에서도 목숨이 있는 이상 글을 계속 써나간 박경리(p.190) 등.『쓰고 싸우고 살아남다』 속 스물다섯 명의 여자는 모두 자신의 전부를 바쳐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저자는 스물다섯 명 모두가 단순한 취미로 글을 쓴 것이 아니라는 분석에 방점을 찍는다. 이들 모두는 악착같이 글을 써서 생계를 꾸렸다. 살기 위해 글을 썼던, 한편 글을 쓰지 못해 앞당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던 여자들의 일생은 ‘글쓰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의 일생은 전부 선했고 치열했다.

이제 앞선 시대에서 쓰고 싸우고 살아남았던 여자들의 미래를 사는 사람을 본다. 자기에게서 이탈된 삶을 되돌리기 위해, 자기 의지대로 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그리하여 쓰는 여자가 된 사람은 지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나이며 또 이 글을 읽는 당신들일 것이다. 감히 ‘우리’라고 칭하고 싶은 쓰는 여자들의 과거 격정적 삶에 공명하는 현재의 ‘우리’는 그리하여 계속 글을 쓰게 될 것이다. 시대의 경계를 뛰어넘는 공명이 진동함을 느낀다. ⓡ





죽음으로 그들이 전하는 것은?

김순조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위원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5월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2년하고도 4개월 여 만에 우리는 일상의 시간으로 불완전하게나마 돌아왔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비일상의 나날들을 정신없이 보내는 그 시간 한 컨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다. 아니 코로나 발생 전부터 있어 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더욱 증폭된 움직임이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대 여성의 자살이었다.

2019년 한해 동안 극단적인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20대 여성은 534명, 전년 대비 25.6%나 증가 한 숫자였다. 그리고 코로나가 본격 시작된 2020년에는 622명으로 16.4%나 늘었다. 그 시간 동안 40대 이상의 자살률은 감소한 가운데 10대부터 30대 여성들 그룹만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20대 여성 자살률은 단연 높았다. 자살 시도자 수도 20대 여성이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살 시도자 2만 2,572명 가운데 20대 여성 자살 시도자는

4,607명으로 전 연령대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전년 대비 33.5%나 늘어난 추세였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이뿐 아니었다.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어도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청년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전체 진료를 받은 연령대 중에서도 20대 여성의 가장 높았다. '아침부터 우울하다. 잠만 자고 싶다. 월요일 회사 나갈 엄두가 안 난다. 사회생활이 힘들다.' '남편이 승진한다는 핑계로 육아는 온통 내 차지다. 독박육아로 인해 우울하기만 하다. 죽고 싶다.' '우울증 약을 10년째 먹고 있다. 병원도

“

20대 여성들의 높은
자살률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범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지하고 그들을 위한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고민해야 한다.

”

‘가기 싫고 사라지고만 싶다.’ 20~30대 여성 커뮤니티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글이다. 그나마 이렇게 토로하는 여성들은 비교적 건강한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라 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것은 트위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해 사진과 영상들이다.

지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전시와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가지역 최초로 만 18~34세 1,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만 25~29세 여성들은 조기정신증, 한국형 조울병, 통합적 한국판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알코올 중독, 범불안장애 등에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 20대 여성들은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까지 감행하는가? 일부에서는 코로나블루로 20~30대 여성의 자살률 증가를 설명하지만 오랜 시간 자살률 추이를 지켜본 이들은 코로나블루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고 못 박는다. 코로나 발생 3년 전인 2017년 이후부터 높아가는 자살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의 시각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관계 지향적이어서 점차 고립화·1인화 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대면 활동이 금지된 코로나 상황은 이를 더욱 악화시켜 자살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 설명이지만 이도 전적으로 옳은 설명은 아닌 듯 하다. 여성은 관계 지향

적이라는 성 고정관념의 편향된 시각인 데다, 모든 연령층의 여성이 아닌 20대 여성층의 자살률 급증에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려는 움직임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현정 교수(서울대 인류학과)는 최근 발간한 「가장 외로운 선택」(북하우스)에서 ‘남녀 차별과 가부장적 사회문화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 받지 못하다는 점,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처럼 젊은 여성은 폭력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이들이 경험하는 우울과 절망의 가장 보편적인 항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성보다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20대 여성들이 막상 사회에 나왔을 때 겪어야 하는 노동 시장에서의 불평등은 이들을 무력감에 빠져들게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사실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노동 시장에서 여성들은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 나아가 퇴사 등으로 떠밀림을 당해야 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분석이다. 또한 학교와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성적 모멸감 역시 20대 여성들이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2016년 강남역 사건이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2020년 N번방 사건은 20대 여성들에게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일이었다. 그들이 느꼈을 불안과 무력감에 대해 우리 사회는 그저 ‘묻지마 사건’이라는 등으로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20대 어떤 여성은 “저를 비롯한 제 주위 친구들이 갖는 우울감은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무력감, 미래에도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에서 오는 것 같아요. 채용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주는 불만, 지나친 외모 중심의 사회가 주는 불편감, 언제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몰카에 대한 불안감 등이 늘 내재 되어 있어요. 환경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어찌하기에는 이미 너무 와 버린 느낌이잖아요. 그런 무력감들이 우울감으로 발전하고 때론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지죠.”고 말했다.

1998년 어른들이 IMF를 힘겹게 넘는 것을 지켜보거나 직접 영향을 받으며 자란 오늘의 20대들은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바라보며 무한한 경쟁 속에서 학원과 학교를 오가며 자란 세대다. 대학

에 가서는 취업에 매진하며 캠퍼스의 낭만과는 먼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마음을 터놓고 지낼 친구조차 사귀지 못했다. 이런 이들에게 기성 세대는 고작 정신이 나약하다느니 아니면 이기적이라느니 젊은이다운 열정이 없다는 등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라떼는 말이야’식의 훈계만을 늘어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대 여성들은 운동으로 그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20대 여성들의 높은 자살률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범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지하고 그들을 위한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고민해야 한다. 그들의 불행은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불행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20대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개인적인 것으로 보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 차원에서 청년 정신건강의 위급성을 깨닫고 상담라인을 늘렸음을 인지하고 고민거리가 있거나 우울감이 깊어질 때 상담실을 찾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6월 청년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문을 연 대전청년 마인드링크 창구와 대전청년내일센터에서 운영하는 대전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다. 대전청년마인드링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조기 정신증의 발견과 치료를 도우며 지역전문의와 1:1 상담도 지원한다.

대전청년내일센터는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대전청년들을 전문 상담 기관과 연결시켜 최대 7회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은 대전청년내일센터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

☏ 대전청년마인드링크

전화 | 042-471-1535

인스타그램 | @dj_youthmindl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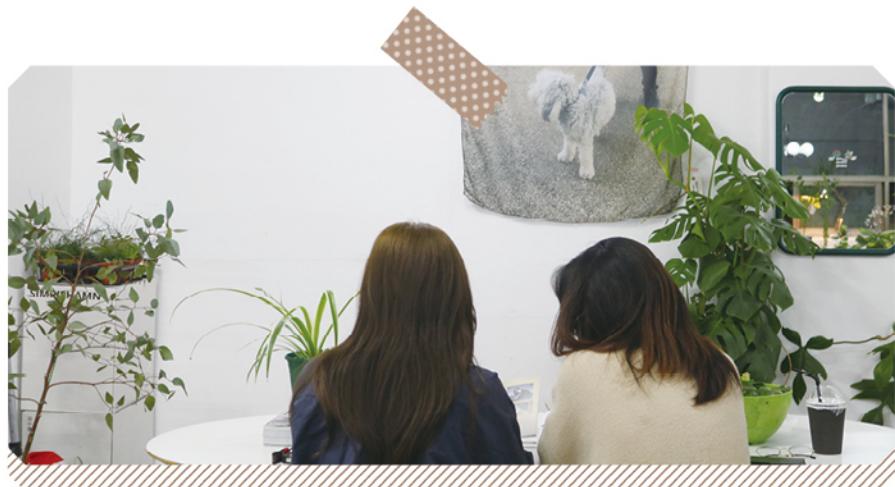
☏ 대전청년내일센터

전화 | 042-222-3007

인스타그램 | @dj_youthcenter

내가 선택하는 가족 :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이야기

이유진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페퍼 1인가구 / A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3인가구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별이나 같이 사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서로 돌보며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자발적으로 맺고 또 지키는지에 주목한다.

대전에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다. 그렇게 갈마동의 ‘고소한 식물원’에서 두 사람을 만나,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페퍼’는 1인 가구, ‘A’는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3인 가구를 이루고 있다.

Q 생활동반자법은 언제 알게 되셨나요?

페퍼 고등학생 때? 20대 초반? 그때쯤 들었어요. 프랑스에 동반자법¹⁾이 있다. 아마 비정상회담이나 비슷한 예능에서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Q 1인 가구라고 하셨는데, 생활동반자법이 생긴다면 같이 살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페퍼 저는 비혼을 선택해서 살고 있어요. 결혼을 정말 하고 싶지 않고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결혼제도에 묶여있기보다 동거하는 식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법이 없으니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까지 제 보호자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

Q A님은 3인 가구라고 하셨는데, 같이 사는 게 어떤 좋은 점이 있으신지?

A 돈을 아낄 수 있죠. 재밌고요. 다들 술을 좋아해서 저녁에 같이 마시기도 하고,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챙겨주기도 해요.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페퍼 고독사하지 않을 수 있다? A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육아랑 비슷하잖아요. 세 명이 역할이나 시간을 나눠서 강아지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생활동반자법만 있다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Q 법적으로 가족임이 인정되지 않아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A 이번에 같이 살던 친구가 아팠어요. 119를 불러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입원을 해야 했거든요. 동의서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제가 가족이 아니라서 작성할 수 없고 그 종이를 들고 친구한테 갔어요. 결국 친구의 어머니께서 오셨어야 했죠. 만약에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나 어머니가 전화를 못 받으셨으면… 거기서 아찔하더라고요.

1) PACs(팍스·시민연대계약)

Q 보통 이사를 하면 주소지 이전을 하잖아요. 세 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A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등록을 했고, 다른 두 명은 각자 본가 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같이 사는 언니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저희가 다 동거인니까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에서 문자도 안 오고 가족이라는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처음 접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생활동반자법이 있었다면 등록을 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었겠죠.

Q 만약 동성혼과 생활동반자등록이 모두 가능하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으신지

A 그래도 저는 결혼을 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활동반자법은 동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만, 그래도 집안과 집안이 엮인다는 부담감이 없으니까.

1999년 프랑스는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PACs(팍스·시민연대계약)'을 만들었다. 세액공제 등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보장받는다. 이성 커플의 호응도 커 2001년 1만 6,589건이었던 팍스 커플 수는 2017년 19만 3950건으로 늘었다.³⁾

A 그런데, 생활동반자법이 생기면, 요즘 집 살 때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도 있고 대출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생길까요?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Q 생활동반자법이 생긴다면 일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A 이 법이 생긴다고 해서 제가 바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고 고독사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상 2019년 최저 생계비용의 기준을 1인 가구 51만 2,102원, 2인 가구 87만 1,958원으로 잡고 있다. 수입이 전혀 없는 두 명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혼자 사는 두 명에게는 102만 4,204원을, 둘이 같이 살면 87만 1,958원을 지원해야 하므로 재정을 약 17%가량 절약할 수 있다. 더욱이 둘이 같이 살면 최저 생계비용 이상의 소득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실제로 더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황두영, 외롭지 않을 권리)

페페 저는 막연함이라는 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살다가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기면 (등록할 수 있으니까). 뭔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죽지는 않겠구나. 내가 결혼을 안 해도 되겠구나. 내가 이 친구에게 나의 마지막을 부탁해도 되겠구나. 그런 든든함이요.

생활동반자법은 2014년 초안이 마련됐으나 보수단체 등의 반대로 밤의 조차 되지 못했다. 현재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정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한다.³⁾ 그러나 한국에서 비친족가구⁴⁾의 수는 이미 42만 가구(91만 명)를 넘고 있다.⁵⁾ 가족을 혈연과 법률혼에 의한 관계로 제한하는 것은 실제적인 친밀성 속에서 일상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생활동반자법이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가족을 선택하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알까? 누군가는 결혼으로 완성되지 않은 가족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든든한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2) 동아일보, '결혼 않고도…프랑스에선 다양한 '신개념 가족'이 태어납니다' (2019.6.18)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족

5) 하민숙(사회문화조사실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 '가족 다양성의 현실과 정책 과제: 비친족 친밀한 관계의 가족 인정 필요성'

예민함으로 바라볼 어린이의 권리

권순지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

통치 권력이 제도로 인정하는 주체와
그렇지 못한 비주체를 구분하여
차별을 양산하는 사회의 기울기 값은
이미 최대치에 가까워졌다.

”



어느 특정 집단을 지정해 구분하고 배제하는 일이 손쉬운 시대다.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의 특정 소수자 집단을 향한 차별과 혐오의 선동 및 재생산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한다. 소수자, 약자를 향한 차별이 혐오를 동반하여 언어, 문화, 제도와 같은 통로로 재생산되는 문제를 다룬는데 있어 ‘어린이’의 권리 역시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사회적 발언권과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 존재가 공적 논의의 장에서 보통 더욱 제외하기 쉬운 존재로 치부 당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더욱 필요를 느낄 수 있는 문제다. 특히 제도를 보면 그 사회가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떤 권리는 중요한 것으로 용인되고 어떤 권리는 사소하다고 판단되어 밀려난다. 사회 위계에 따른 권리 인정은 제도로 발현되고 그 과정과 결과에서 배제당하는 존재는 소수자, 약자다. 통치 권력이 제도로 인정하는 주체와 그렇지 못한 비주체를 구분하여 차별을 양산하는 사회의 기울기 값은 이미 최대치에 가까워졌다.

여타 소수자 집단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온 어린이의 권리 침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최근 사례가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30km/h)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시범운영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어린이가 등하교하지 않는 야간에는 운전자 및 도로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40~50km/h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며,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비합리적이라는 불편을 반영한 결과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정부의 수정된 방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일부 시간대만(심야 시간) 상향 조정하여 차량정체와

이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은 언뜻 보아서는 문제가 있지 않다. 효용과 합리성이라는 명목하에 제법 공정한 제도로 비친다. 그러나 여기에 운전자 당사자의 목소리는 있어도 어린이 당사자의 목소리는 없다. 당사자로서 사회적 저항을 할 수 없는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는, 오직 불편함만을 호소하는 저항 세력들로 인해 거의 무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자리로 이동했다. 운전자를 위시한 시민 권리가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을 압도한 것이다. 게다가 심야 시간대에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낮다는 조건도 구체적 현실과 다른 오류라 지적된 바가 있어¹⁾,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시범적 완화 방침은 심히 우려스럽다.

영·유아 및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의미하는 '노키즈존'의 존재는 어떠한가. 2015년 무렵 등장한 이래 끊임없이 파열음을 빚고 있는 노키즈존 논란에서 해방되기란 아직 요원해 보인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일상에 손해를 끼치는 무례한 행위는 비판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어린이를 카페, 식당과 같은 일상적인 장소에 진입할 수 없게 금지하고, 특정 성별의 양육자까지 혐오하는 방식으로 번질 문제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배제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방식인가의 질문에서 당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 업소, 어린이, 양육자와 같은 개인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없다. 공존의 길은 사회 전체가 찾아내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노키즈존의 전면적 아동 배제가 명백한 차별임을 강조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마저 무력화시킨 차별과 혐오의 문화는, 사회의 작고 힘없는 존재가 있을 곳을 박탈했다. 발언권 없는 작은 존재를 향한 공감과 환대가 사라진 장소, 그 장소를 규정하고 점유한 이들에겐 사회적 목소리를 낼 힘이 있다. 이른바 권력자들, 공적 장소에서 자기 언어가 없는 어린이에게 있어 '어른'으로 호명되는 모두는 권력자가 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이에 대항하는 실천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바로 '예스키즈존'이라는 이름을 내건 가게들이다. 예스키즈존은 사회적 장소에서의 소통과 태도에 대해 배울 기회의 자격조차 얻지 못한 아동, 그리고 양육자를 위해 노키즈존과 반대의 의미를 표방하는 공간이다. 예스키즈존에서는 어른을 동반하지 않은 초등학생들끼리의 다정한 또래 문화도 포착할 수 있다. 이처럼 어린이를 배제하는 위계적 문화를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항적 실천 사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차별 없는 공존 사회를 위해
가야 하는 길 위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순수하고
훌륭한 길잡이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대항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실천이라는 점이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각 개인의 실천이 연대를 맺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구조적 지지를 바탕삼아 사회 전체의 대항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노키즈존이 어린이를 환대하지 않는 사회의 극단을 보여준다면,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에서 쉽게 다루는 '～린이'라는 표현은 어린이에 대한 미숙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의 미숙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를 해당 분야의 첫글자와 '어린이'를 합성하여 만들어내는 신조어의 장에서 어린이는 성인과 동등하지 않은 존재다. 요리 실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요린이', 부동산 초보를 뜻할 때는 '부린이', 주식에 입문하는 사람에게는 '주린이'라고²⁾ 부르는 등 어린이를 초보적이며 완성되지 않은 존재로 규정하는 신조어 문화는 대중매체를 넘어 일상에서도 만연해 있다. 신조어가 혐오 표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어린이를 향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져 자칫하면 차별행위로도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한다면 지나친 예민함일까.

『어린이라는 세계』를 쓴 작가 김소영은, 어린이 존재를 향한 깊은 사유의 언어가 펼쳐지는 자신의 책에서 "어린이들이 좋은 대접을 받아 봐야 계속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다. "정중한 대접을 받는 어린이는 점잖게 행동한다고, 또 그런 어린이라면 더욱 정중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자기 일상에서 어린이를 동등하게 대접해 온 성숙한 어른에게서 나온 언어는 이처럼 명징한 해답을 준다. 차별 없는 공존 사회를 위해 가야 하는 길 위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순수하고 훌륭한 길잡이다.

1) 심야시간대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한다는 내용 <시사인 2022.04.28. 기사 참조>

2) '～린이' 표현의 부적절함에 관한 내용 <한겨레 2022.05.03. 기사 참조>

다함께 누리는 평등하고 안전한 도시 대전

대전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체감도가 높은 여성친화 정책을 추진하여 지난해 5개 자치구 모두 여성친화도시¹⁾로 지정되었고, 지역성평등지수는 2011년부터 10년 연속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소개한다.

대전시는 여성커뮤니티센터, 임산부 전용 주차장, 수유실 등 여성친화 공간 조성사업에서 확장하여 시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전형 여성친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친화마을은 여성들이 성인지 관점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하여 성평등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마을이다.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등으로 마을 공동체 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 '여성친화도시'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해 지역 정책을 만들어가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
사업내용 | 성인지 관점의 마을 역사 기록 및 영화 해설사, 여성친화적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성평등 대화 식탁 등



▼ 여성친화마을 골목포럼



▼ 여성친화 마을 공동체 활동



▼ 가로등 설치 개선사업



▼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여성안심 캠퍼스 조성사업
(22년 3월~10월)

-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학가 조성(범죄예방 순찰활동,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캠페인전개 등)
- 5개 대학교, 25명 인전자김이채용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사업 운영

-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강사파견
- 2002년 최초 운영: 1008개 기관, 270천명(누적)



가로등
개선사업

- 어두운 골목길 등 취약지역을 전수조사하여 안전한 거리 조성
- 대전시 403개소 설치



여성친화정리수납
지원사업

- 가정 내 정리정돈과 공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리수납과 컨설팅 지원



시민참여단
운영

- 성인지 관점을 지닌 대전시민의 자발적 참여
- 일상 속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안전모니터링
- 2015년부터 운영, 매년 15명 위촉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대전’
**「대전청년내일센터」가
만듭니다**

대전청년내일센터는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30조 청년내일센터)에 근거하여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청년들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다양한 ‘내일’을 만들고 대전의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의_042-222-3007

1 **플랫폼**
(종합적인 청년정책 지원)

- 청년정책플랫폼 | 대전시의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청년 관련 정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 청년주간 행사 | 청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청년 중심의 행사, 청년의 날 기념 축제 준비
- 청년 공간 운영 | 공간별 컨셉에 맞는 청년들의 활동 공간 제공
- 청년홍보기자단 | 정보 확산 및 공유극대화를 위한 홍보기자단 운영
- 청년정책상담 | 청년들에게 맞춤형 청년정책 안내 및 상담

2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청년마음건강지원
다양한 문제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감 등 정신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 대전청년 라운드테이블
지역의 청년 및 전문가가 모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주요 이슈를 논의

3 **자원발굴**
(대전지역 청년인재 연결 및 아카이빙)

- 청년주도 사업 지원
시정 참여를 위한 정책 제안 활동 지원 및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년과 지역 연계의 기반 마련
- 청년 유관기관 발굴 및 연계
정보 공유 등 지역 사회 청년 네트워크 구성

**대전청년내일센터가
하는 일**

#청년이살기좋은 #대전 #대전청년
#청년참여 #청년지원 #네트워크 #많은부

4 **역량강화**

-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대청넷)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문제를 고민, 실천 가능한 정책의 제안 및 모니터링, 다양한 청년들과 네트워킹하는 청년 시정 참여 기구
- 청년커뮤니티(청년의 숲) 지원
자발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대전 과학 예술비엔날레 2022

미래도시

↳ DAEJEON ART AND SCIENCE BIENNALE 2022

↳ FUTURE OF CITIES

↳ 2022.8.2.TUE -
10.30.SUN

↳ 대전시립미술관
DAEJEON MUSEUM OF ART

↳ TBC 대전일보 DMA

